

석사학위논문

현대소설에 수용된 ‘이여도’의 의미

지도교수 안 성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혜란

2006년 2월

현대소설에 수용된 ‘이여도’의 의미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0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혜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시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현대소설에 수용된 ‘이여도’의 의미

김 혜 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연구는 김석범의 『화산도』, 정한숙의 『IYEU島』, 이청준의 『이여도』,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여도』를 텍스트로 하여 제주인들에게 이상향으로 전승되어 온 ‘이여도’ 모티프가 현대 작가들에게 어떻게 창조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구조주의와 기호학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텍스트의 의미망 요약과 구조 탐색, 작중인물의 욕망 탐구 방식과 이항대립구조 등을 원용하여 소설 속에 수용된 이여도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작가가 분석 텍스트에서 수용한 이여도의 현대적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1. 김석범의 작중인물들의 유토피아는 대동사회형을 지향한다.
2. 정한숙의 이여도는 현재 실존 공간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청준의 이여도는 현재적 삶이 있는 현실 공간 속에서 찾아야 함을 역설한다.
4. 고시홍은 이여도가 일상적 풍요로움이 있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현실의 힘든 역경을 이겨내게 해 주는 구원의 섬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인간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상적인 삶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갈망하며, 소설은 그런 낙원 지향 욕구의 한 문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편의

작품 또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보편적인 낙원지향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여도’는 제주인들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과 강한 의지를 바다에서 찾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제주의 척박한 환경 조건과 사회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여도의 문학적 의미 수용에 관한 연구의 가치가 충분함에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여도의 의미를 수용한 문학작품의 분석적 접근을 통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아진다.¹⁾



※ 이 논문은 2005년 10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4
3. 연구 범위와 방법	9
II. ‘이어도’의 의미 분석	13
1. 김석범의 『화산도』	14
1) 무장투쟁과 낙원 찾기 구조	14
2) 이상세계 건설의 욕망	21
3) 혁명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	29
2. 정한숙의 『IYEU島』	35
1) 과거 극복과 낙원 찾기 구조	35
2) 실존적 현실 지향의 욕망	40
3) 현재적 일상 공간의 행복	45
3. 이청준의 『이어도』	49
1) 죽음과 낙원 찾기 구조	49
2) 역설적 낙원 탐구의 욕망	53
3) 실존 공간으로서의 낙원	56
4.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	62
1) 적극적인 삶과 낙원 찾기 구조	62
2) 원초적 욕구 충족의 욕망	68
3) 일상적 풍요 공간으로서의 낙원	72
III. 결 론	78
참고문헌	81
<Abstract>	84

I. 서 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국의 현대소설에 수용된 ‘이여도’의 의미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여도는 제주인들의 신화와 전설, 민요 등을 통해 전승되는 제주인의 정체성의 한 뿌리인 동시에 현대 작가들에게도 낙원의식의 한 상징적 의미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고장에서나 그 곳의 자연 환경과 생활 조건을 반영한 이야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이야기는 구전이든 기록이든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전설은 후대인들에 의해 창조적으로 계승되거나 새롭게 재창조되기도 한다.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연적, 역사적 환경에 따른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이를 연구하는 학자나 문학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구전되는 이야기가 많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이여도 전설은 사면이 바다로 접해 있는 지리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제주도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독특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는 자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본격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은 고려 숙종 10년(1105) 이후, 고려 중앙 정부와 제주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축적된다. 특히, 행정과 재정 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인 목사나 판관이 향리층이나 토호들과 결탁하여 손쉽게 과다한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수탈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인들은 정부의 수탈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돌과 자갈이 섞인 화산토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을 경작하기 위한 힘겨운 노동은 또 다른 원망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고난은 제주도의 역사 발전 과정에 축적되어 문화로 표출되었

다. 그것은 제주인들이 오랫동안 꿈꾸어 온 이상적 공간인 이여도의 상징적 의미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전되는 전설 속에서 이여도라는 이상적 공간을 꿈꾸어 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설 속에서 이여도는 현실의 초월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제주인들의 독특한 현실관과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여도 전설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이야기로서, 또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은 남편과 아들을 살리는 초월적인 구원의 공간으로 그려짐으로써 하나의 문화적 상징성을 띠게 된다

이여도 전설²⁾은 제주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 옛날 제주인들의 생활모

1) (가) 여성들만 생활하는 여성국으로 그려진 것으로 남자들은 이여도로 꿈을 찾아서 가려고 했지만 이여도를 찾지 못하고 돌아온다. 해녀가 어느 날 풍랑을 만나 우연히 이여도로 가게 된다. 그 곳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 이여도를 탈출해서 귀향하여 보니 벌써 100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이 이야기는 1979년 KBS <전설의 고향>에서 방영된 바 있다. 이 전설은 작가가 방송을 위해서 여러 부분 각색한 흔적이 보이지만 드라마로 이여도의 공간이 형상화되어 전국에 방영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여도는 사람이 늙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상적 공간으로 각인된다.

(나) 현용준, 김영돈이 1979년 채록한 것으로 이 내용은 충청도 해안을 배경으로 한 것이 특징인데 남편이 소실을 두고 함께 무인도인 이여도에서 시앓과 살림을 차리자 시아버지와 본처가 이여도로 가서 남편과 시앓을 데리고 오던 중 풍랑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한 해에 한 번 정성을 모아 제사를 치러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다) (가)에서처럼 이여도가 과부들만 사는 나라로 설정되었는데, 조천리에 사는 고동지가 중국으로 국마 진상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 이여도에 표류하게 되어 여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산다. 얼마 후에 고향 생각이 간절하여 강남으로 가는 절반쯤에 이여도가 있으니 나를 불러달라는 애절한 이여도 민요를 구슬피 불렀다. 마침 고동지는 지나가는 중국 상선을 만나 한 여인과 귀향하여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다. 지금 조천리 장귀동산당이 그 때 <이여도 여인>의 제단이다.

(라) 또 김영화의 『문학과 이여도』 논문에도 북제주군 김녕리 김순여가 제보한 이여도 전설, 『제주도 전설지』, (제주도, 1985)에서 발췌한 전설 (나)와 같은 내용이

습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여도는 제주인들에게 꿈과 이상의 공간으로 통한다. 제주인들은 출항한 배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여도에 가서 재난을 피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겠거니 자위하며 기대한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승세계인 이여도에 가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지속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현실의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얻게 된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여도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한 욕구로 나타나서 그것은 이승과 저승을 포함하는 구원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잡게 된다.

제주인들은 살아서는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여도’에 가기를 희망했으며, 죽어서도 이여도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믿음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죽음의 현장인 영장밭디³⁾의 장묘에 보면 샨면의 장고 소리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하며 죽은 자의 새 삶을 축복해 주는 절차가 있다. 이는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관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서방정도로 믿고 있는 이여도로 떠나는 죽음의 시간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타난다.⁴⁾ 남편이나 아들이 바다에서 죽은 줄 알면서도 비탄에 젖어 울부짖지 아니하고 이 곳보다 훨씬 나은 곳에서 살고 있으리라 믿으며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

인용되었는데 여기서도 이여도가 무인도로 설정되어 있다. 그 곳에서 소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남편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가서 설득하고 가족이 함께 귀향하다 불귀의 객이 되니 고향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주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나)의 내용과 (라)의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제보자가 김순녀로 동일한 인물이나 제보한 시점이 달라 배경이 충청도와 제주도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정할 뿐이다.

(마) 이 연구의 텍스트의 하나인 『화산도』에서도 이여도 전설이 인용되었다. 대정강(姜)씨가 중국으로 공물을 바치러 떠났지만 돌아오지 않아 강씨 부인이 즉흥으로 애절한 통곡의 곡을 부르자 같은 처지의 과부들이 애절하게 이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다.

3) 장례식장, 묘지.

4)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 정신』, 제주문화, 1996. p.95.

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여도 전설은 이처럼 내 혈육과 가족의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역설적 믿음에서 강하게 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요, 전설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이를 수용한 몇몇 문학작품의 창작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필자는 1960년 이후 발표된 4편의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이여도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여도를 제재로 한 작품에는 1940년대 김이육의 시 <이여도>와 이시형의 소설 『이여도』를 시작으로 제주 출신 작가뿐만 아니라 제주를 여행한 후 이여도에 관심을 보인 다른 지역 작가들에게도 꽤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와 수필을 제외한 현대소설에 한정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부득이 1940년대에 쓰여진 이시형의 소설은 일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제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60년 이후에 발표된 김석범의 『화산도』와 정한숙의 『IYEU島』, 이청준의 『이어도』 그리고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 등 4편으로 국한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를 한정할 경우, 이 연구는 자연스럽게 제주 출신 작가의 소설 2편과 다른 지방 출신 작가의 소설 2편에 한정됨으로써, 제주인들에게 이상향으로 전승되어 온 이여도 모티프가 현대 작가들에게 어떻게 창조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살피는 계기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이여도의 의미 분석은 제주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전통 등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도 기여하게 되리라 믿는다.

2. 선행 연구 검토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여도 모티프의 문학적 의미 수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현대소설에 수용된 이여도 모티프에 대한 연구로는 이청준⁵⁾과 정한숙⁶⁾의 소설을 텍스트로 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 연구와 관련성을 지닌 연구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운호는 『이청준 소설 연구』⁷⁾에서 주인공인 천남석 기자를 현실 도피의 인물로 파악하면서 좌절과 절망의 부정적 공간을 탈피하여 자신의 구원을 얻고자 죽음을 선택한 인물로 규정한다. 여기서 이어도는 죽음의 섬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의 공간이자 구원의 섬으로 해석하였으나, 작품

5) 서경원, 『죽음의 Initiation적 양상-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부산대 어문교육 1981.

이은성,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희일, 『이청준 소설의 주체 구현 방식』,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지혜, 『이청준 소설의 낙원 지향성 연구』, 숭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승준, 『이청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 : 인물들의 현실대응방식 관하여』,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정애, 『이청준 소설의 미적구조』, 신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현희, 『이청준 소설의 시간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신계철, 『이청준 소설의 공간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마희정, 『이청준 소설의 탐색구조 연구』 <『매잡이』, 『소문의 벽』, 『이어도』, 『시간의 문』을 중심으로>,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1995.

이지영, 『이청준 소설의 낙원 지향성 연구』, 숭실대 교육대학원, 1999.

김영희, 『이청준 소설론 : 인물행위의 동기에 대하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이훈, 『이청준 소설의 알레고리 기법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9.

6) 정영아, 『정한숙 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재두, 『정한숙 소설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홍현아, 『정한숙 소설의 전통의식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박은숙, 『정한숙 소설 연구』, 건국대학교 고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 장운호, 『이청준 소설 연구』 <고향탐색 모티프(motif) 작품을 중심으로>, 동덕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의 내용 파악에만 치중하여 이어도가 함유하고 있는 초월의 공간이자 구원의 섬으로서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지닌다.

최규성은 『이청준 소설 연구』⁸⁾에서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이청준의 주요 작품의 구성방식과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도 이어도의 공간 구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기법의 소개에 머물고 있다.

한영현은 『이청준 소설의 낭만성 연구』⁹⁾에서 이어도를 피안의 섬 유토피아로 단정하여 현대인이 동경하며 추구하는 원초적 자유의 안전한 공간으로 서술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청준의 『이어도』를 제주인들의 염원과 동경을 주제로 삼아 죽음과 관련 지은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주제 해석에 있어서의 논리적 설득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 연구』¹⁰⁾에서 『이어도』 외 세 작품을 통해서 낙원의식을 분석하고 있다. 현실에서 삶의 고통을 느끼고 구원의 땅을 회구하지만, 다시 고통의 땅인 현실로 돌아온다는 관점으로 낙원의식을 고찰하고 있으나 현실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구원의 땅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은숙은 『정한숙 소설 연구』¹¹⁾에서 정한숙의 대표작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구성 기법과 플롯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IYEU島』의 주인공인 <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적 태도로 심리를 파악하며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작중인물들의 신비로운 탄생, 죽음, 재생의 희망 등을 바다의 심상에서 그 원인을 찾는 점은 특기할 만 하지만 작중인물들이 무엇 때문에 이어도를 찾았는지, 그리고 이어도

8) 최규성, 『이청준 소설 연구』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9) 한영현, 『이청준 소설의 낭만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0) 최혜영,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1) 박은숙, 『정한숙 소설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재두는 『정한숙 소설 연구』¹²⁾에서 작품을 연대별로 분류하여 작가의 주제 의식을 시대 상황과 결부하여 탐색하고 있다. 『IYEU島』는 전근대적 인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비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구세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간형을 갈망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다. 그 새로운 인간형이란 인습에 함몰되어 어떠한 미래의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구세대적인 인간형이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환상이 아닌 현실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하는 진취적인 인간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형에 대한 탐색을 보여 주었으나, 낙원의 이미지와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김중희는 『유토피아 소설의 상상력과 현실인식』¹³⁾에서 『이어도』와 『비화밀교』가 동일하게 유토피아 회귀 사상을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어도』를 통해서 현실 밖에 서 있는 집단적인 삶의 구원과 정신적인 위안으로서의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있지만, 현실과 유토피아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내보이고 있다.

김은석은 『이어도 : 理想과 絶望의 世界』¹⁴⁾에서 제주인들이 현실의 반대상인 유토피아에 대한 강한 집착과 욕구를 보이는데, 이것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결핍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한다. 여기서 이어도를 <이상의 세계>와 <절망의 세계>를 함축한 양가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어도의 구체적인 상을 조명하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통해 제주도민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정의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타 논자들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12) 김재두, 『정한숙 소설 연구』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3) 김중희, 『유토피아소설의 상상력과 현실인식』 <이청준의 『이어도』 외 『비화밀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988.

14) 김은석, 『이어도:理想과 絶望의 世界』, 『한국학논집 12권』, 1987.

최혜실은 『<이어도>에 나타나는 유토피아의 空間性과 時間性』¹⁵⁾에서 제주인들의 유토피아의 하나인 이어도 사상을 제주도의 역사와 환경에서 찾고 있다. 천남석 기자라는 문체적 개인을 통해 공간적인 이어도 의식은 현실 도피적인 것이며 이어도는 바로 제주도라는 단정을 하지만, 그 상징성을 헤아리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김혜영은 『근대소설에 나타난 환상의 존재방식』¹⁶⁾에서 『이어도』는 근대소설에서 환상적인 소재의 효과 및 그러한 형상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담론의 구성 방식과 구성의 서사적 기능을 밝히는 데 유용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어도의 환상성은 역설이라는 담론적 장치에 의해 조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설은 존재를 부재로, 부재를 존재로 입증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천남석 기자의 실증은 이어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이어도』를 환상소설로 단정하여 환상의 의미에 치중하여 연구한 것은 타 연구와 다른 점이나 현실공간에서 이어도의 의미를 캐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장양수는 『이청준 중편<이어도>의 巫俗的 解釋』¹⁷⁾에서 『이어도』는 낙원 모티프 소설이면서 비현실적 몽환적 이상향 추구의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이어도』가 지니고 있는 무속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바다는 세속적 시간과 공간이 폐기되어 天界, 이승, 저승의 3계(三界)가 만나는 곳으로 신화적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세계를 상징한다고 주장하며, 낙원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낙원의 현실적 의미 해석에 한계를 보인다.

김영화는 『문학과 이어도』¹⁸⁾에서 제주인들에게 전승되어 온 이어도의 이미지와 제주도의 민요, 전설, 소설, 시 등 문학 속에 형상화된 이어도의

15) 최혜실, 『<이어도>에 나타나는 유토피아의 空間性과 時間性』, 1994.

16) 김혜영, 『근대소설에 나타난 환상의 존재방식』 <이청준의 이어도를 중심으로>.

17) 장양수, 『이청준 중편<이어도>의 巫俗的 解釋』, <동의어문논집 제6집>, 1993.

18) 김영화, 『문학과 이어도』, <백록어문>, 제주문화, 1996.

의미를 분석하여 비교하고 있다. 연구자는 여기서 ‘이여도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곳이 아니라 인간 생활이 묘사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이해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여도의 현대적 의미 수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인의 전통 속에 내재한 이여도의 심상을 현대적 의미의 낙원의식으로 형상화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전통의 계승이라는 문제 외에도 소설적 수용이라는 과제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작품의 내용 분석에만 치중함으로써 제주인들에게 전승되어 온 이여도의 의미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내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의 내용 분석에만 의존하여 연구를 수행해 온 결과로 판단되지만, 제주인들이 전통적으로 간직해 온 이상적 공간으로서 이여도의 이미지와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데는 미흡하기 마련이다. 작중인물들이 왜 유토피아적 공간인 이여도를 갈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작가나 독자 모두에게 주어진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지금까지 이여도에 관한 연구는 전설, 민요를 통하여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여도의 의미 수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제주인들에게 전승되는 이여도가 현대소설에 어떠한 의미와 상징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여도, ‘이어도’, ‘과랑도’ 등의 명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작품 속에서 이여도에 대한 명칭이 언급된 것으로는 1940년대 김이옥의 시와 이시형의 소설에서 발견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정한숙의 소설로 이어진다. 그 후 1970년대에 들어 이청준이 『이어도』를 발표하

면서 이어도는 ‘이어도’로 명명되다가, 1979년 KBS가 ‘전설의 고향 <이어도>’와 1983년 KBS ‘TV 문학관 <이어도>’를 방영하면서 대중들 사이에 이어도는 ‘이어도’로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작품뿐만 아니라, 상호의 간판에서도 ‘이어도’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은희 『이어도를 찾아서』에서 상호명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어도라는 상호는 2곳인데 비해, ‘이어도’는 28곳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그러므로 1970년 이후 급속히 이어도가 <이어도>로 활자화되거나 알려진 것은 무엇보다 매스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984년 KBS와 제주대학교가 파랑도 탐사를 시도하여 스코트라 섬²⁰⁾의 소재를 파악했을 때, KBS에서는 이것을 ‘이어도 탐사’라 하여 크게 보도하고, 정부에서 스코트라 암초의 이름을 ‘이어도’라고 명명한 것도 일조했다고 본다.

이것을 계기로 이어도는 제주도 서남쪽 먼바다에 있는 물 속의 암초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재하지 않은 전설의 섬 이어도를 실재하는 ‘파랑도’와 일치시켜 유추케 함으로써, 제주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어도에 대한 믿음에 혼란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7년 해운항만청에서 파랑도에 ‘이어도’ 동부표를 설치하고, 1999년에는 제주도에서 “제주인의 理想郷 이어도는 제주 땅”이라는 수증 표석을 설치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 곳을 이어도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또 해양수산부는 이 곳에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1995년에 착공하여 2003년 6월 완공함으로써 이어도와 파랑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같은 섬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수중에 떠 있는 암초가 이어도로 잘못 인식되어 환상의 섬, 꿈의 섬의 이미지가 퇴색됨은 물론 수중 암초에 붙여진 파랑도 (socotra rock)가 환상의 섬 이어도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예는 한국 현대소설 작품 속에서도 발견된다. 이를테면, 1974년 이

19) 김은희, 『이어도를 찾아서』, 이어도, 2002, p.18.

20) 1900년 영국상선 Socotra호가 암초에 부딪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901년 Water Witch호가 본격 탐사하여 이를 확인한 선장 Lyne가 이 암초를 처음 발견한 Socotra호의 이름을 따라 Socotra Rock이라는 이름으로 해도상에 표기되었다.

청준이 발표한 중편 『이어도』도 전설의 섬 이어도와 ‘파랑도’를 동일시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혼란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근자에 들어서는 인터넷에서 파랑도를 검색하면 ‘이어도(離於島)’ 또는 스코트라 록(scotra rock)이라 설명하고 있어 이상향으로서 이어도의 이미지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이어도와 ‘이어도’, ‘파랑도’의 일치 여부를 논증하는 대신 텍스트 원전의 직접 인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어도로 표기하고자 한다. 이어도는 제주인들이 ‘이어도’ 보다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채록한 민요에도 대부분 이어도로 표기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²¹⁾

이 연구에서는 이어도를 모티프로 한 현대소설 중에서 특별히 4편에 국한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김석범의 『화산도』²²⁾와 정한숙의 『IYEU島』²³⁾, 이청준의 『이어도』²⁴⁾,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²⁵⁾가 그것이다. 이처럼 텍스트를 한정하는 것은 이어도의 의미를 제재나 주제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공통 요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모두 제주 지역이라는 점이다. 제주시와 어촌이 배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들도 이어도가 제주 해역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21)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 1993.

_____,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제주문화, 1993.

_____, 『제주도 민요 연구. 상』, 일조각, 1965.

大谷森繁, 『高橋先生과 朝鮮의 民謠』, 좌혜경 편, 『제주섬의 노래』, 국학자료원, 1995.

22) 김석범, 『화산도』, 실천문학사, 1988.

『화산도』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만들어졌는데 1부 전 5권은 1988년 이호철, 김석희의 번역으로 실천문학사에서 나왔고, 1990년대에 마무리된 2부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1부 전 5권에 한정되었음을 밝혀둔다.

23) 정한숙, 『이어도』, 『학원한국문학전집』, 학원출판 공사, 1988.

24) 이청준, 『이어도』, 『제3세대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4.

25) 고시홍, 『표류하는 이어도』,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1987.

둘째, 이 작품들은 제주 토박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들은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과거 제주인들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도를 주제로 형상화하고 있다. 작중인물 중의 누군가 이어도를 찾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넷째, 제주도의 가옥과 무가 등 전통적인 생활풍습이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작가들은 이어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수용하고자 이어도 전설과 민요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구조주의와 기호학의 방법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여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써 이어도가 어떤 의미로 수용되었는가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텍스트의 분석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단계는 텍스트의 의미망 요약과 추출 과정을 거쳐 구조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작중인물의 욕망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욕망의 목표인 이어도를 어떻게 갈등과 고뇌 속에서 추구해 나가는가를 살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이항대립 구조를 활용하여 주제가 형상화되는 과정과 이어도가 현대적으로 의미화되는 과정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Ⅱ. ‘이여도’의 의미 분석

이제, 이여도 모티프를 제재나 주제의 관점에서 수용한 4편의 소설 텍스트를 분석하여 이여도의 의미 탐색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김석범의 『화산도』에서는 4·3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 상황과 이여도 전설을 통하여 이여도를 새로운 사회, 즉 이상사회로 설정해 놓고 혁명을 통하여 구현하려는 주인공들의 욕망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작가는 전설을 인용하여 이여도는 환상의 섬이지만 이상적 공간으로서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마의 섬, 죽음의 섬이라고 명명한다.

정한숙의 『IYEU島』에서는 지도상에는 없으나 제주도 어부들의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여도를 제목으로 주인공이 불우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현실 속에서 이여도를 찾고자 하는 욕망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이여도가 작가에게 어떤 현대적 의미로 수용되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이청준의 『이여도』에서는 어릴 적부터 주인공의 의식을 지배해온 전설 속의 이여도를 찾아 떠난 천남석 기자의 기이한 행적과 사고가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초현실적 의식에 바탕을 둔 제주도 출신의 양주호 국장과 현실과 과학에 입각한 선우 중위의 대립을 통하여 이여도의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지만, 결말부에 이르러 작가의 입을 빌어 설명된다.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여도』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쳐 나가는 주인공의 상처와 고통을 그린 작품이다. 아득히 보이는 듯하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말로만 전해 들은 상상의 섬 이여도의 존재는 주인공의 고난과 역경의 삶을 통해 역설적으로 확인된다.

1. 김석범의 『화산도』

『화산도』는 순차적 사건 진행에 따라 4·3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간 진행이 느려 2~3개월에 걸친 이야기가 1부 전 5권 12장에 담겨 있다. 작가는 조국 분단을 막고 살육과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장항쟁임을 보여 주면서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고발과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은 1부의 결말부에서 4·3의 전야제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2부에 전개될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 1990년대에 마무리 된 2부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여도의 의미를 구조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 먼저 텍스트의 의미망을 추출하여 요약하고자 한다. 요약은 패러프레이즈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작용과 작중인물의 욕망 추구 상황이 객관적으로 정리된다.



1) 무장투쟁과 낙원 찾기 구조

(1) 의미망의 요약

1장

- ① 남승지는 회합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내에 파견됨.
- ② 남승지는 몸을 피해 다니다 시장통에서 한라일보 김동진을 만남.
- ③ 남승지와 김동진이 서울 유학 시절 학우회에 참가하여 같이 활동함.
- ④ 남승지는 입당한 사실을 정당화시키며 유달현을 만나 비밀문서 전달함.
- ⑤ 유달현의 집에서 남승지, 김동진, 박산봉이 만나 조직 당원으로서 결속을 다짐함.

2장

- ⑥ 유달현은 이방근을 방문하여 남승지가 왔다고 하며 만나기로 함.

- ⑦ 이방근은 유달현으로부터 무장봉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흥분함.
- ⑧ 이방근은 술집에서 서북 청년단의 횡포를 보고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연행됨.
- ⑨ 이방근은 하룻밤을 감방에서 보내면서 강몽구를 만남.
- ⑩ 이방근은 민족주의 그룹과 조선인 좌익 연구 그룹 활동 등으로 체포되었던 과거 때문에 조직에 가담할 수 없음을 양준오에게 말함.
- ⑪ 강몽구는 이방근을 방문하여 조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설득함.

3장

- ⑫ 서울에서 내려온 유원은 남승지를 생각함.
- ⑬ 이방근은 박산봉의 조직원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그침.
- ⑭ 이방근은 독립 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한 신탁통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함.
- ⑮ 이방근은 양준오의 하숙집에서 남승지를 만나고 지하 조직의 소식을 전해 들음.
- ⑯ 남승지가 이방근을 방문하고 유원을 만남.

4장

- ⑰ 어머니 제삿날 서청이 방문하여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여 감.
- ⑱ 이방근은 5학년 때 졸업식 전 날 봉안전 벽에 오줌을 싸고 사상범으로 몰린 적 있음.
- ⑲ 아버지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부르조아 측근들과 절친하게 지내면서 약삭빠른 은행원 최상학을 유원에게 소개하지만 이방근이 수모를 주어 내쫓아 버림.

5장

- ⑳ 남승지는 산간 마을 비밀 지하조직 아지트에서 무기를 제조함 .
- ㉑ 남승지는 강몽구와 봉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떠남.

6장

- ②② 남승지는 사촌형 남승일과의 재회로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해짐.
- ②③ 남승지는 어머니, 여동생과 재회하여 일본에 머물기를 권유받으나 조국의 해방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우김.

7장

- ②④ 유달현은 무장봉기 날짜를 알려주고 혁명과 애국심을 강조하여 이방근을 압박함.
- ②⑤ 강몽구는 이방근에게 조직에 가담하기를 권유하나 가담하지 않음.
- ②⑥ 무장 봉기는 4월 초로 결행 예고됨.
- ②⑦ 아버지는 집에 강몽구를 비롯한 공산당원들이 드나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김.
- ②⑧ 이방근은 목탁영감을 만나기 위하여 산천단에 갔다가 무장 봉기의 근거지인 관음사를 다녀가는 남승지를 만나 무장봉기 날이 다가왔음을 실감함.
- ②⑨ 이방근은 부르조아와 지배계급의 타도를 통해 인간 평등과 사회주의 실현에 앞장서는 남승지를 도와주고 싶어짐.

8장

- ③⑩ 양준오는 도청 경리부 과장이 되어 도청 내부의 비밀을 수월하게 알 수 있게 됨.
- ③⑪ 유달현은 일제시대 황국신민화 단체의 행적 때문에 강몽구의 신임을 얻지 못함.
- ③⑫ 인민 봉기 투쟁일은 4월 3일로 결정됨.
- ③⑬ 이방근은 동생 유원과 남승지의 안내를 받고 해방구를 방문하여 무기 제조 광경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름.
- ③⑭ 이방근은 이여도 전설을 인용하여 혁명의 결과를 예측함.
- ③⑮ 유원과 승지는 이여도의 의미를 혁명을 통하여 건설되는 제주도의 공

간으로 설명함.

- ③⑥ 한라신문 김동진이 호소문을 인쇄하여 배포되고 그는 산으로 잠적함.
- ③⑦ 계모가 이방근과 부역의 관계를 눈치 채고 계락을 꾸밈.

9장

- ③⑧ 남승지와 손서방이 뼈라를 비밀리에 성내로 옮김.
- ③⑨ 유달현은 이방근에게 반혁명분자, 사회의 기생충 부르조아 사상의 소유자라고 비난함.
- ④⑩ 위험을 염려하여 유원은 서울로 떠남.
- ④⑪ 봉화가 새벽 2시 한라산 중턱 오름에서 타오름.

10장

- ④② 제주지방 비상경비사령부 설치, 토벌작전 시작됨.
- ④③ 김동진은 유격대원이 되어 싸움.
- ④④ 강몽구는 혁명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싸우는 당위성을 이방근에게 강조함.

11장

- ④⑤ 계모, 선옥의 계략이 시작됨.
- ④⑥ 며칠 동안 굶을 하여 선옥의 입으로 이방근과 부역의 관계를 발설함.
- ④⑦ 정부는 4·3 진압을 위하여 서북청년회 회원을 늘림.
- ④⑧ 국방경비대 연대장 김익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함.

1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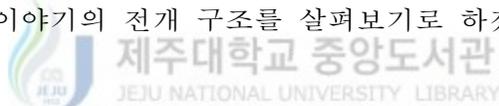
- ④⑨ 경찰과 서청이 자행한 폭행과 살해로 양준오와 이방근이 고뇌함.
 - ④⑩ 유격대 대표 김성달과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구가 4·28 회담이
 - ④⑪ 성립되어 정전이 되지만 10여 일 뒤 협상이 파기됨.
- 해안 마을은 투표 전 날 밤 중산간 마을로 옮겼으며 섬 전체가 5·10 단

선 반대 투쟁 태세를 갖추.

⑤ 경무부장 조병옥은 ‘선거는 국시인 고로 반대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라고 천명함.

의미망의 요약을 통하여 이 작품은 8장에 나타난 이여도의 의미 구축을 위하여 1, 2장의 발단 부분에서 혁명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3장에서 7장까지는 작중인물들의 갈등 구조가 형성되어 분규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혁명의 상징인 이여도 건설로 갈등이 집약되어 8장과 9장에서 화해 조짐과 더불어 혁명의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이여도의 의미는 무장혁명을 통하여 구현된 이상사회를 지시한다.

그러나 결말에서 그들의 꿈은 좌절되고 이상과 현실의 근원적인 차이를 실감하게 됨으로써 이여도는 환상의 섬이자 이상적인 욕망의 공간으로 남게 된다. 이제 작품 속에 내재된 이여도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야기의 전개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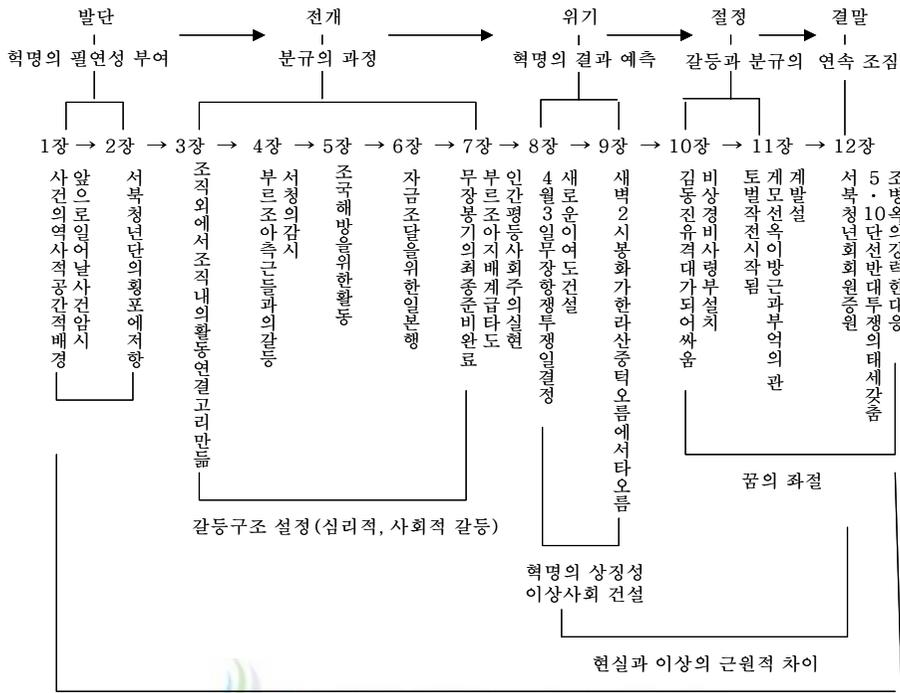


(2) 이야기의 구조 탐색

소설의 플롯은 인과관계에 의한 스토리(事件)의 배열이기 때문에 그 전개에 있어서 논리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플롯의 전개 과정은 처음·중간·끝의 기본적인 단계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4단계, 5단계, 6단계 등으로 구분한다.²⁶⁾ 여기서, 작품 내용의 구조도를 통해서 소설의 구성과정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시간의 순차적 진행법에 따라 1장부터 12장까지 사건을 평행적으로 진행시켜 이념이 빛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26) 구인환·조남철, 『소설 창작론』, 한국통신방송대학교, 1994. p.123.



작가관찰자시점 (시간의 순차적 진행)



먼저, 발단 부분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은 이 소설의 서두로 주인공이 소개되며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제주도가 1947년 3·1절 사건²⁷⁾과 관련하여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작중인물들은

27)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 4·3 항쟁의 배경』,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pp.76~77.

3·1절 기념대회는 민전의 주관하에 개최되었지만 실제로 남로당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3·1절 기념대회 주요 슬로건은 “삼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 “『미소』동위원회의 재개”, “3·1정신으로 통일독립 전취하자”, “친일파를 처단하자”, “부패경찰을 몰아내자”, “양과자를 먹지 말자” 등 반미 구호도 등장하였다. 기념행사가 끝나고 관덕정 광장을 향해 가두시위가 시작되었다. 1만 명 가량이 참여한 대규모 행렬이었다. 관덕정의 제주감찰청 앞에는 응원경찰과 미군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발포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발포는 시위행렬이 다 지나간 후에 이루어져 희생된 사람들은 구경하던 사람들이었다. 6명의 민간인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혁명을 이룩하기 위한 당원으로서 결속을 다짐한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암시와 제주도라는 공간적,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여²⁸⁾ 혁명의 필연성과 함께 이 소설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다.

소설의 전개에 해당되는 3장에서 7장까지 보면 주인공인 강몽구, 이방근, 남승지의 관계와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이방근은 전형적인 부르조아 집안의 아들로써 민족주의 그룹의 일원으로 오사카에서 체포되었던 사실과 조선인 좌익 연구그룹으로 부산에서 체포된 사건, 그리고 5학년 때 졸업식 전 날 봉안전 벽에 오줌을 싸고 사상범으로 몰린 사건 등과 주변의 현실적 중압감 등으로 갈등하며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면서 혁명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적 고뇌로 갈등한다. 강몽구 등은 현실의 변화를 추구하는 민족의지가 강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조직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모두 거절한다. 그러나 그의 고뇌는 계속되며 유달현으로부터 무장봉기 사실을 듣고는 심리적인 개인적 갈등과 조직과의 갈등은 극에 달한다. 절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방근, 남승지, 유달현의 갈등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위기 단계는 8장과 9장이 해당된다. 이는 갈등의 단계에서 준비된 절정을 향한 복잡한 대립과 긴장감을 주는 곳이다. 당시 토벌대와 폭력을 직

사망했고 8명이 부상당했다.

28) 고려 원종12년(1271) 대몽항쟁의 주체였던 농민과 천민은 삼별초와 합세하여 제주도 항과두리에서 마지막 항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주인들과 삼별초 상호간에 반 중앙정권이라는 공통적 입지에 의하여 가능했다. 그러나 대규모 방어설비 공사에 제주인들의 동원이 불가피하여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이 때부터 몽고지배가 끝나는 시기까지 100여 년의 시련이 시작된다.

4·3이전에 나타난 민중운동들은 도민들이 정확히는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중앙 봉건국가에 대한 독립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반제투쟁의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됨으로써 일제에 대한 투쟁은 한 단계 고양되어 제주도민의 조직적인 무장 투쟁의 경험이 되어 최후의 시기에 이르러서는 조직적이고 집합적인 무장 투쟁의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접적으로 행사한 세력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제주인들이 무장항쟁이란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든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설명하며 드디어 4월 3일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된다.²⁹⁾ 이방근은 혁명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이여도 전설을 인용하여 혁명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 준다. 남승지는 혁명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며 이 곳 제주도가 이상사회인 이여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절정 단계인 10장과 11장에서는 혁명가들의 인간적 고뇌는 계속되며 혁명을 통한 이상사회의 구현은 막연하여 그들의 꿈은 좌절되기 직전에 놓이게 된다. 혁명의 결과를 예상하여 이상과 현실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혁명가들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부분으로 혁명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결말을 암시해 준다.

마지막 단계인 12장은 대단원으로 결말 부분이다. 이 소설은 결말 부분에 성격과 사건의 해결이라는 무거운 당위를 주지 않았다. 결말은 발단과 더불어 소설 구조상 가장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요소를 지닌다.³⁰⁾ 이 단계에서는 4·3 진압을 위하여 서북청년회 회원을 늘리고 유격대 대표 김성달과 국방경비대 제 9연대장 김익구 사이의 회담이 성사되어 정전이 된다. 10여 일 뒤 협상이 파기되어 섬 전체가 5·10 단선 반대 투쟁의 태세를 갖추므로써 극적인 결말보다는 갈등과 분규의 연속으로 보아진다. 여기서는 혁명의 상징인 새로운 이여도 건설에 대한 꿈이 좌절되어 절정에서 나타난 이상과 현실의 근원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후의 사건과 장면들은 독자에게 위임시키고 있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2) 이상세계 건설의 욕망

(1) 작중인물의 욕망

여기서 소설의 인물들에 대한 욕망과 갈등을 고찰하는 것은 이여도를

29)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30) 정한숙, 『소설 기술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p.128.

지향하는 작중인물들의 욕망의 목표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 소설에 등장되는 인물들은 작가의 창의력, 상상력에만 의존하여 창조되거나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상상력에 의존할 경우 신뢰성과 개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물들은 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평면적인 성격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욕망이 견고함을 암시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몇 개의 특성으로 구별된다. 첫째, 무장봉기에 참여하는 좌파 인물인 강몽구와 유달현, 둘째, 좌파는 아니지만 당시의 폭력에 맞서는 김동진과 남승지, 셋째, 무장대에 참여하여 조직활동은 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항쟁에 도움을 주며 그 필요성을 실감하는 이방근, 양진오 등 여러 층위의 인물들이 있다. 이들은 혁명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고뇌를 하지만 모두 평면적인 인물들로서 본래 자기의 모습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방근의 누이인 이유원은 오빠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며 점차 제주도적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다. 이유원은 이방근과 조직 사이에서 중간적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점차 입체적 인물이 될 조짐을 보인다. 그들은 역사적인 극한 상황 속에서 각기 서로 다른 갈등 구조를 거치게 되지만 혁명을 통한 평등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게 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이방근은 부르조아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며 귀족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일제시대 사상범으로 체포되었던 개인적 행적과 주변의 현실적 중압감 등으로 갈등한다. 현실의 모든 문제에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비밀 유격대의 조직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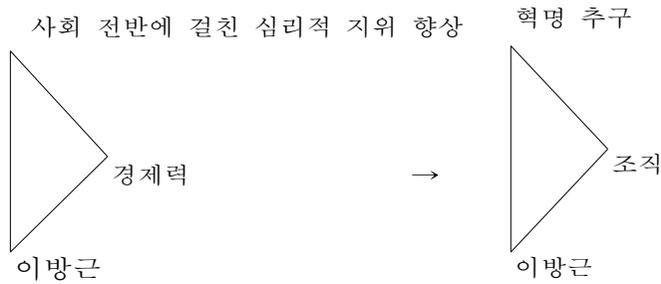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인물들의 욕망 추구 방법은 작중인물의 성격과 인간관계, 주어진 환경과의 대응방식에 따라 결정된다.³¹⁾ 작중인물들의 욕망을 살펴

보는 것은 그들의 지향의식과 욕망 추구 상황을 확인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르네 지라르의 욕망 이론과는 달리, 비이념적인 작중인물의 욕망 연구는 허구적 공간 속에서 거주하는 인물의 삶을 총체적으로, 혹은 전인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욕망 도식은 작중인물의 수만큼,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순간까지 욕망 추구의 양상만큼 다양하게 추적하여 그려낼 수 있다.³²⁾ 욕망이 주체(S)는 텍스트 속에서 자기의 삶과 욕망을 가진 인물이 되며 중개자(M)는 주체의 욕망을 도와주는 순수한 협조자로서 기능하는 중개자가 된다. 욕망 목표(O)는 주체가 중개자의 도움을 받아 이루고자 하는 행동이나 삶의 목표가 된다. 이 연구방식은 인물의 욕망과 행동이 바뀔 때마다 욕망도를 그려낼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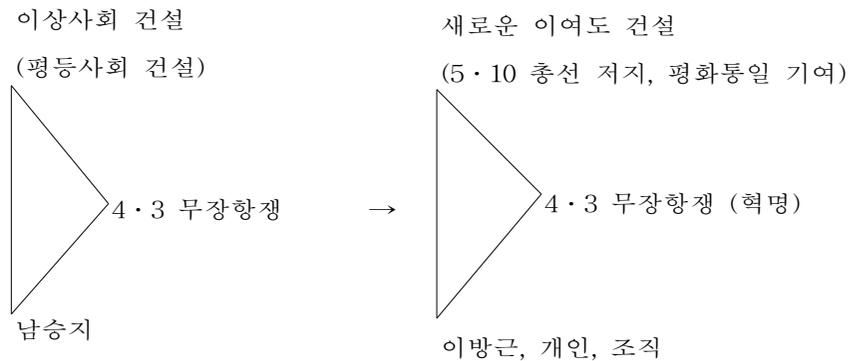
먼저, 이방근의 욕망을 도식화하면, 그의 욕망체계를 이루는데 중요한 매체는 돈, 잦은 외출, 조직에 관여하는 일, 혁명이 필요로 하는 공간적인 환경, 호방한 성격 등이다. 그러한 중개자를 통한 그의 욕망은 대체로 경제력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러 분야에서 일을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보이지 않은 힘으로 작용한다. 또 조직원은 아니지만 조직이라는 단체의 규합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날을 흥분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다시 혁명이라는 중개자를 거쳐 이곳에 이상적인 사회 건설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안성수,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 研究 試論』 <『배따라기』, 『狂炎소나타』, 『운수 좋은 날』, 『날개』, 『巫女圖』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113.

32) 안성수, 『작중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백록어문>, 백록어문학회, 2001. pp.115~116.



또 다른 욕망을 보이는 주요한 인물로는 남승지, 강몽구, 유달현, 김동진과 그 외 비밀 유격대원들과 사회의 변화에 점차 지각을 보이는 이유원, 양준오 등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욕망으로 집약할 수 있는 가치 지향적인 목표가 있다. 그것은 4·3이라는 무장 항쟁의 혁명을 매개로 하여 이룩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다. 결국 이방근을 비롯한 그들의 궁극적 욕망은 4·3 항쟁을 통하여 서북청년단을 이 곳으로부터 쫓아내고 5·10 총선을 저지하여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방근과 남승지 그리고 조직 속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또 개인을 포함하는 거대한 조직은 욕망의 주체가 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방근이 그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 등 많은 재력을 가지고 귀족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 곳곳에 그의 힘이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

고 있다. 그의 이러한 심리적 지위는 지하 조직의 보이지 않은 여러 투쟁들을 가능케 하고 지상의 활동 무대에서 서청의 감시단을 뚫고 조직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한다. 그러나 이방근은 비밀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지만, 조직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혁명을 이루려는 기대 속에서 심리적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과 조직 간의 갈등을 겪게 된다.

비밀 지하 조직원으로서 활동이 돋보이는 남승지의 욕망추구 방식 또한 이방근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남승지는 일본에서 어머니, 누이와 함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고향의 독립을 위해 젊음을 바치겠다고 다짐한다. 따라서 그의 욕망은 4·3 항쟁이라는 혁명을 통하여 서북청년회를 몰아내고 5·10 총선을 저지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함은 물론,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부르조아와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인간평등과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꿈꾼다.

여기서, 남승지의 욕망은 곧 이 소설 속에서 무장항쟁을 꿈꾸는 작중 인물들의 보편적인 욕망이자 조직의 욕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소설이 끝날 때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종류의 갈등 양상을 보이게 된다. 다음으로 주제의 의미 탐색에 좀 더 근접하기 위해서 이러한 욕망과 갈등 구조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욕망과 갈등의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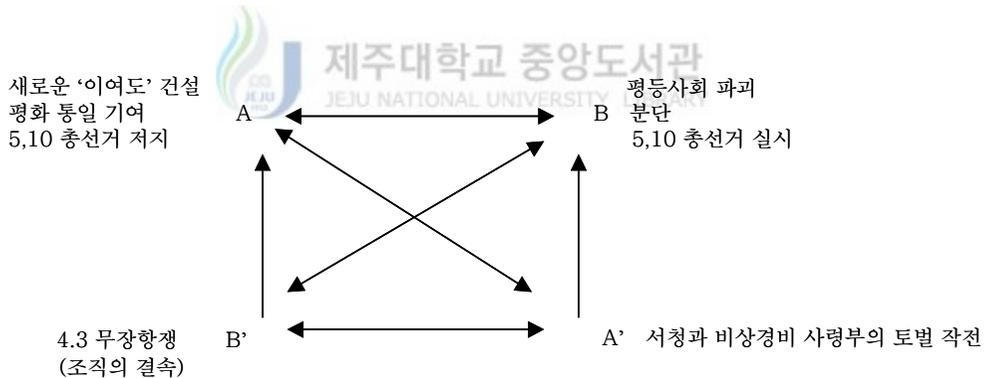
여기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작중인물의 욕망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여도'의 의미 탐색에 좀 더 근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소설 속에서 인물의 욕망과 갈등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소설 속의 갈등이란 욕망의 주체가 욕망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개인적 사회적 긴장과 투쟁, 대결, 불화 등에 의해 생성되는 일종의 심리적 충돌과 괴리현상을 일컫는다.³³⁾ 그러므로 작중인

물의 갈등 구조 속에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과 동기들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이 소설에서도 이방근을 비롯한 여러 층위의 인물들은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중에 긴장과 대결, 불화 등의 대립적 상황이 형성된다.

그러나 이들의 궁극적인 욕망은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욕망과 갈등 양상은 A.J. 그레마스가 제의한 ‘이항대립 구조’³⁴⁾의 기본 틀을 활용하는 경우 명료한 분석에 이를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이야기의 주체와 대립자간의 관계를 대립과 모순, 함의(내포)의 3가지 관계로 보여주고 있다. 이항대립 쌍의 한 쪽은 나머지 한 쪽의 대립적 의미를 전제하고 자신의 의미를 세운다. 텍스트의 잠재적 구조가 지니는 이항대립 쌍들은 명시적 구조를 이루는 사건들과 사건의 주인공들과 어떤 연계를 맺고 있는지를 역동적으로 보여준다.³⁵⁾



새로운 이여도 건설 A는 주체의 욕망 목표이고, 평등사회 파괴 B는 대립자의 욕망목표이다. 4·3 무장 항쟁 B'는 주체의 중개자이며 서청과 비상사령부의 토벌작전 A'는 대립자의 중개자이다. A와 B, B'와 A'는 대립 관계이고 B와 B', A와 A'는 모순관계, A와 B', B와 A'는 함의(내포) 관계

33) 안성수, 위의 논문, pp.121~122.

34)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언어학과 문학 기호학의 만남』, 민음사, 1998. pp.275~291.

35) 서정철, 위의 책, pp.179~183

를 보여 준다. 여기서 이어도라는 새로운 이상사회 건설은 서청과 비상경비사령부의 방해로 좌절되고 있으나, 도민의 결속과 4·3 무장항쟁을 매개로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 전체구조 관점에서 변증법적 발전에 이르게 하는 중개자는 B'로 조직의 결속과 무장항쟁이 된다.

남승지와 강몽구, 그 외의 인물들은 4·3 무장항쟁이라는 혁명을 조국통일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며 4·3 봉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5·10 총선을 저지하고 서청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새로운 이어도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정치협상 준비를 강력히 추진해온 남로당이 추진 성과라는 점을 인식해 주게. 지금은 문자 그대로 혁명전야일세. 자주독립의 길을 넓히고 혁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인민대중은 피투성이의 투쟁을 하고 있네. 이 시대의 커다란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되네.”³⁶⁾

미군정청 통역으로 일하다 도청 경리과장으로 발탁된 양준오는 서청의 횡포와 불평등한 사회 조직, 5·10 총선 등 조국의 현실에 실망하고 회의를 느끼며 심리적 갈등에 겪는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고향에 남아 혁명에 가담하게 된다.

우리도 가능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딘가 산악대 지도부가 있는 곳을 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쪽에서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비극의 등장인물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³⁷⁾

한라신문 기자로 일하는 김동진도 4·3 봉기를 알리는 유인물을 인쇄하

36) 김석범, 앞의 책 3, pp.227~228.

37) 김석범, 위의 책 5, p.224.

고 배포한 뒤에 종적을 감추고 만다. 그는 지금의 현실을 병든 조국으로 표현하여 현실과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무장항쟁만이 조국을 구할 수 있고 이 곳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부여하여 인간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을 욕망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전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병든조국'이 아니라, 미친 조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들에게 절망밖에 주지 않는 조국의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고, 일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때입니다. 조국의 분단을 가로막고, 신생조국을 통일하고 건설할 일은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략> 전단을 동봉하는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젊은 후배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단연코 싸울 뿐입니다.³⁸⁾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개인적인 심리적 갈등을 통하여 현실 속의 모순된 점을 발견하고, 점차 조국, 현실, 조직과의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시켜 결국 최종적인 욕망의 세계에 이르고자 한다. 이항대립구조도에 나타났듯이 대립자인 서청과 비상경비사령부의 방해로 욕망의 목표는 좌절되었으나 도민의 결속과 4·3 무장항쟁을 매개로 욕망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설 속 여러 층위의 인물들도 이러한 보편적인 갈등구조 속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이 지향하는 욕망 목표는 새로운 이여도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이여도의 의미는 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사회, 즉 평등사회로 정리된다.

작가가 이여도 모티프를 제재로 하여 어떻게 최종적인 주제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8) 김석범, 위의 책, p.113.

3) 혁명을 통한 평등사회 구현

마지막으로, 주제의 세계를 이어도의 의미와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목의 상징성을 검토하고 나서 작품 속에 내재된 이어도의 의미 파악에 이르고자 한다

『火山島』라는 제목은 평화로운 섬의 이미지보다는 불행한 역사 현장의 흔적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 화산을 연상시키는 이 소설의 제목은 이상향의 건설을 위한 무장투쟁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불과 뜨거운 이미지를 담고 있는 화산은 곧 혁명을 위한 무장투쟁을 원관념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소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주제의 영역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여 인간의 존재를 해명하고자 하는 작가정신과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고발하고 지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설명 할 수 있다면, 이 소설은 후자의 주제 영역과 관련된다. 이를테면, 시대와 사회의 변모 속에서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나름대로의 지향의식을 낙원의식과 연결시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작가는 ‘이어도’ 전설을 제재로 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즉, 지나간 고난의 세월을 반추하면서 현실의 문제로 닥쳐온 4·3 무장항쟁의 상황 속에서 ‘이어도’를 그리게 한다. 이방근을 비롯한 남승지, 이유원은 현실 속에서 ‘이어도’를 찾으면서 그 ‘이어도’를 찾아 사지로 떠난 지난 날의 친구를 회상한다. 과거 민중이 고통스러울 때 ‘이어도’는 그들의 이상을 실현해 줄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리워했음을 작가는 이방근의 입을 빌어 말해주고 있다.

고려시대, 몽고에 침략당한 탐라는 13세기를 사이에 두고 약 100년 동안 그 지배를 받아왔다.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군이 탐라를 최후의 근거지로 삼아 항전하다가 끝내 패배함으로써 원나라의 지배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원나라의 지배에 놓인 당시의 탐라는 매년 섬의 토산물을 원나라에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공물을

실은 배는 섬의 남서쪽에 있는 대정현 모슬포에서 출항하여 중국의 산둥지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대정의 강(姜)씨라는 사람이 해상운송대리업자가 되어 매년 수 척의 큰배를 공물선으로 내보냈다. 공물을 가득 실은 배는 황해를 건너 아득히 먼 중국 땅으로 향하는데, 이상하게도 공물선은 무사히 섬에 돌아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무렵, 항로 중간에 ‘이허도(離虛島)’ 즉 이어도라는 섬이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섬은 탐라인이 섬 밖으로 나갈 때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섬인데, 나갈 때든 돌아올 때든 이 섬에만 도착하면, 일단 항해의 안전이 기약된다고 믿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까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섬, 중국과 탐라 사이의 바다 위에 있다는 것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섬이었다. 어느 해 선주인 강씨는 직접 공물 선을 타고 산둥지방을 향하여 배를 띄웠지만, 그도 결국 섬에 돌아오지 못했다. 혼자 남게 된 강씨의 늙은 아내는 불귀의 객이 된 남편을 그리워하며, 환상의 섬 이어도를 향하여 이어도여, 이어도여로 시작되는 즉흥곡을 만들어 통곡의 슬픔을 노래했다. 역시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같은 처지의 과부들이 이 애절한 노래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다. 이윽고 애절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이허도요(離虛島謠)’는 섬의 부녀자들에게 널리 불려지게 되었다. 39)

이상은 작가가 주인공 이방근의 입을 통하여 인용하고 있는 전설의 전문이다. 여기에 인용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은 제주인들이 역경과 고난의 시절을 살던 13세기원나라가 지배하던 100여 년 간이다. 앞의 이어도 전설 속에 함축된 이어도의 의미를 간추리면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탐라인들이 섬 밖으로 나갈 때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이다.

둘째, 섬 밖으로 나갈 때나 섬 안으로 들어 올 때 일단 이 곳에 도착하면 항해의 안전이 기약된다.

셋째,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가 본 적이 없는 섬이다.

넷째, 중국과 탐라 사이에 있다는 것 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섬이다.

39) 김석범, 위의 책 4, p.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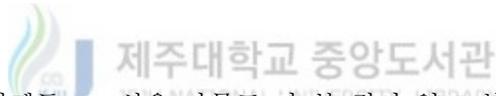
다섯째,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섬이다.

여섯째,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애절한 노래를 불러 이어도 민요가 널리 퍼지게 만든 섬이다.

이 전설에서 이어도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바다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인들이 섬 밖으로 나갈 때는 안전을 기약하기 위해서 들르고 싶어했던 섬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곳에 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제주인들은 상상으로만 그 곳을 그릴 수밖에 없다. 설사 그 곳에 당도했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죽음의 섬으로 생각한다. 또는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 준 행복의 공간으로 간주하여 그 곳에 간 사람은 고난이 있는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여긴다.

작가가 주인공들의 입을 빌어 설명한 이어도 전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이어도는 환상의 섬이다.



“.....어쨌든, 그 섬은 아무도 가 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다가가면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환상의 섬이라네”⁴⁰⁾

이어도는 오랜 역사의 시간과 더불어 제주도 사람들의 꿈을 키워 주는 이상향(理想郷)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환상의 섬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이어도는 현실 공간이 아닌 이상 공간으로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이다.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과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했다.

“-<전략> 이어도는 오랜 역사의 시간과 더불어 제주도 사람의 꿈

40) 김석범, 위의 책 4, p.154.

을 키워주는 꿈의 섬, 즉 이상향(理想鄉)이 되었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게 재미있어. 아직 아무도 거기까지 가 본 적이 없었지만, 설사 거기에 도착한 사람이 있다해도 거기서 돌아온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마(魔)의 섬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매년 원나라까지 공물을 보내느라 계속 착취당해온 섬사람들의 원한도 그 꿈에 담겨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환상의 섬, 행복과 이상의 섬으로서 오랫동안 섬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있으면서, 그들을 꿈과 모험으로 몰아낸 셈이지,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행과 슬픔의 노래가 생겨나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어도를 찾아 바다의 모험을 계속하고 …… 하하하,<하략>- ”41)

소설 속에서 이어도는 “꿈의 섬, 이상향, 마의 섬, 환상의 섬, 행복과 이상의 섬” 등으로 불린다. 여기서 이어도의 의미는 행복의 섬과 죽음의 섬이라는 양가적 의미를 지닌다. 행복의 섬은 이상적인 삶을 실현시켜 주는 꿈과 환상의 공간을 지시한다면, 죽음의 섬은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마의 섬임을 뜻한다. 이러한 마의 섬이란 말 속에는 현실적으로 진입이 어려운 죽음의 공간이라는 뜻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이어도는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공간으로서 죽음이라는 경계선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어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사람들은 산 너머 저 멀리에 행복이 있다고 하지만 행복을 찾아 산 넘어가 보면 행복은 없고 또 산을 넘어 훨씬 더 먼 곳에 행복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고 만다. 그러기 때문에 행복은 현실적인 삶의 공간인 이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어도’는 바로 이 곳 제주 섬이 되는 것이다.

“이어도는 바로 저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서 있는 발 밑에, 그리고 이 섬 자체가 이어도인지도 모르죠.”42)

41) 김석범, 위의 책, pp.155~156.

넷째, 주제의 차원에서 작가는 혁명으로 이 곳에 새로운 사회, 즉 이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이어도를 찾는 길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아까, 이어도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기에, 어쩌면 발밑에 있는 이 섬이 이어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현실문제로서, 환상의 섬은 이 제주도가 되어 원래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 지방에서 혁명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혁명을 합니다.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일본에서 이어도를 찾으러 여기에 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어도를 바다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섬에서 찾는 겁니다. 유원동무의 말에 재탕하는 게 될지 모르지만 이 섬에 이어도를 만드는 겁니다. <하략>”⁴³⁾

작가에게 현실을 떠난 이어도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이어도는 ‘바다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섬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설 속의 이어도가 환상성을 띠고 있다면, 김석범 소설 속의 이어도는 현실의 혁명을 통해 건설되는 사실성을 띠고 있다

환상의 섬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으며 이 제주도가 되어 원래로 돌아왔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작중인물들은 이 지방에서 혁명을 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조직의 결속을 다짐한다. 남승지는 일본에서 ‘이어도’를 찾아온 이상주의자로 생각하기도 한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고통이 클수록 이상세계에 대한 강한 집착과 욕구로 나타나서 결국 혁명이라는 실천적인 모습을 통한 ‘이어도’를 권유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혁명을 통한 대동사회⁴⁴⁾구현을 주제로 형상화함으로써

42) 김석범, 위의 책, p.153.

43) 김석범, 위의 책, p.157.

써 ‘이여도’를 과거의 전설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사회의 혁명을 통해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준다.



44)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2001. pp.251~268.

대동사회형(大同社會型)은 유일하게 유교적 상상력에 의해 구성된 유토피아 유형이다. 그 원형은 공자가 언급한 禮記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공자가 제시한 대동사회는 堯, 舜 등의 유교적 선왕이 다스리던 태평성대가 모델이며 인위적으로 달성된 이상공간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들과 구별된다. 비교적 강한 현실사회개혁 의지가 공자의 대동사회에 대한 열망이다. 이곳은 인간의 노력과 도야에 의해서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후에 농민반란, 종교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 등을 통하여 대동사회가 실제 추진되기도 한다.

2. 정한숙의 『IYEU島』

정한숙의 『IYEU島』는 제주도 어부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여도를 지도상에 없는 섬으로 전제하고, 주인공의 불우했던 과거를 자유 연상 기법과 복합 시제 및 시점 이동을 통하여 보여주는 작품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현실에서 이여도를 찾고자 하는 주인공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인들에게 구전되는 이여도의 의미를 작가가 객관성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을 소설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여도의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여 현대적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는지를 살피기 위해 의미망을 요약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구조에 접근하고자 한다.

1) 과거 극복과 낙원 찾기 구조

(1) 의미망의 요약



<1. 표류>

- ① 절친한 친구 <나>, 순복, 상운은 신비한 섬 이여도를 찾아 모험을 떠남. (대과거)
- ② 어릴 적 무지개 꿈을 찾아 숲 속을 헤매었으나 그 꿈을 바다에서 찾고자 함. (대과거)
- ③ <나>는 불구의 몸이 된 수병시절 회상, 상운은 전사함. (과거)
- ④ 세 사람은 지나가는 밀수선에 의해 구조됨. (대과거)
- ⑤ <나>는 수병시절 그 밀수선 선장이 기관장이 되어 만남. (과거)
- ⑥ <나>는 구조되어 집으로 돌아옴. (대과거)

<2. 뱃노래>

- ⑦ <나>는 제대 후 고향에서 순복과 배를 탐. (과거)
- ⑧ 순복은 배를 타면서 독특한 이여도 뱃노래 가락을 부름. (과거)
- ⑨ 순복이 제대 후 귀향해 보니 어머니는 사변 때 파편을 맞고 세상을

떠나 있음. (과거)

⑩ 순복의 아내는 친정을 따라 떠남. (과거)

<3. 예술제>

⑪ <나>는 길남의 예술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돌아옴. (현재)

⑫ <나>는 국민학교 시절 학교에서 벌 받던 일 회상. (과거)

⑬ 세 사람은 바다의 아들이라는 자긍심에서 뱃놈의 아들이라는 수치스러움으로 바뀜. (과거)

⑭ <나>는 과거에 다니던 길을 따라 길남의 학교 도착. (현재)

⑮ <나>는 예술제 2부 <디딤바위가 서 있는 마을사람들> 관람함. (현재)

⑯ <나>는 어린시절 공연했던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공연 회상.
(과거)

⑰ <나>는 <디딤바위가 서 있는 마을사람들>을 보면서 순복의 죽음을 생각함. (과거)

⑱ <나>는 극을 관람하다가 밖으로 나옴, 불안 조조. (현재)

⑲ 극 속의 영수 부부는 순복과 그의 아내 모습으로 여겨짐. (현재)

⑳ 잃어버린 이여도를 다시 찾고자 하는 순복. (과거)

㉑ 순복은 뱃노래를 부르다 물 속으로 뛰어 들어 투신자살함. (과거)

㉒ 공연이 끝나고 길남, 순복, <나> 같이 귀가함. (현재)

<4. 교실>

㉓ 어린 시절의 교실 풍경. (과거)

㉔ 세 사람은 빈곤한 동네와 가정환경으로 방과 후 늦게 귀가. (과거)

㉕ 세 사람은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었으나 배를 타고 표류했던 이후 아이들의 관심을 끌. (과거)

㉖ <나>는 길자와 순복의 관계 눈치챈. (과거)

㉗ 세 사람은 우정을 돈독히 함. (과거)

㉘ 예술제 준비. (과거)

㉙ <나>는 시종, 순복은 왕자 배역 정함. (과거)

<5. 추억>

- ③⑩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주연이 결정됨. (대과거)
- ③⑪ 예술제 연습. (대과거)
- ③⑫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공연함. (대과거)
- ③⑬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사랑은 순복이와 길자의 사랑으로 연장됨.
(과거)
- ③⑭ 3년 후 순복과 길자의 결혼. (과거)
- ③⑮ <나>는 젊은 부부를 보며 불면증에 시달림. (과거)
- ③⑯ 오늘도 길남이네 불빛을 보며 잠 못 이룸 .(현재)

<6. 유품>

- ③⑰ 순복은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구경함.
(대과거)
- ③⑱ 순복의 아내는 고향에 없고 친정을 따라 인천으로 감. (대과거)
- ③⑲ 순복은 어린 시절 길자와의 사랑 회상. (대대과거)
- ④⑰ 순복은 풍문으로 아내의 거처를 알아보고자 함. (대과거)
- ④⑱ 순복은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 예술제 회상. (대대과거)
- ④⑳ 길자는 이어도가 바로 이 곳이라 하여 동조합. (대대과거)
- ④㉓ 순복은 마음의 이어도인 아내를 찾고자 환희와 희망을 가지고 떠남.
(대과거)
- ④㉔ 순복은 서울에서 식당 주인과 동거. (대과거)
- ④㉕ 순복은 여자의 한 낫 매춘 행위로 그 곳을 떠남. (대과거)
- ④㉖ 순복은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지만 희망을 잃음. (과거)

<7. 정리>

- ④⑷ <나>는 순복의 장례 후 술만 마시며 희망과 꿈이 요람지인 바다
를 잃어버림.
- ④⑸ 순복의 처 돌아옴.
- ④⑹ <나>는 길자의 과거를 들음.

⑤⑩ <나>는 길남이라는 강한 의욕과 새로운 희망이 생김.

⑤⑪ <나>는 이어도에 모든 희망과 행복을 맡기며 잃어버린 바다를 다시 찾음.

이러한 의미망 요약을 통하여 보면, 이 작품은 이어도의 의미를 희망이나 꿈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은 불우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현실에서 이어도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주인공을 통하여 작가가 이어도를 어떻게 수용하여 문학적으로 구조화하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장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중첩된 이중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1인칭 주인공이면서 관찰자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친구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있다. 3장과 4장에서는 다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와 친구의 이야기를 병행시켜 수평적 진행을 하며 왕자, 시종 또 사랑, 우정 등을 병치시키고 있다. 5장은 다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대과거를 드러내고 있다. 6장, 7장은 이중액자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복합적인 과거회상을 통해 과거 극복과 이어도 추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복잡한 시점 변화를 통하여 이야기에 사실성과 신비로움을 부여하며, 이어도의 상징성을 작품이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투영시키고 있다.

이제, 이야기의 내용 구조를 분석하여 이어도가 작품 속에 투영된 이어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의 전개 구조를 분석해 보고 의미망의 요약을 재구성하여 이야기의 구조 탐색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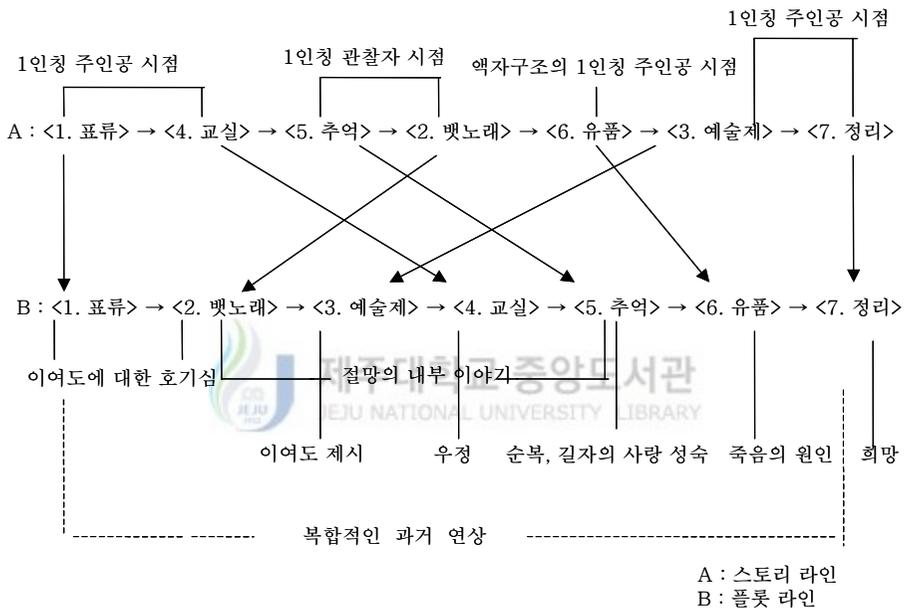
(2) 이야기의 구조 탐색

이 작품은 현재에 이어도의 의미를 구축하여 놓고 중첩된 이중 삼중의 구조를 드러내면서 주제를 포착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주人公인 <나>가 바다에 나가 그물을 치며 복합적인 과거 회상을 거치면서 서술된 플롯의 구조를 보면 <1. 표류 → 2. 뱃노래 → 3. 예술제 → 4.교실 → 5.추억 → 6. 유품 → 7. 정리> 순으로 전개된다. 시점의 변화와

복합적인 시제의 흐름으로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혼란시키고 있으며 인물과 구성, 주제 등을 상세하고 장황하게 전개시키고 있어⁴⁵⁾ 복잡한 사건과 갈등이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용은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사건의 회상이 끝나고 소설이 종결되는 시점은 현재가 된다.

이야기의 흐름을 플롯 구조와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장면마다 과거에서 다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로 돌아오는 삼중의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IYEU島』의 구조는 입체성과 복잡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장에서 주인공 <나>와 친구들이 표류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이여도에 대한 호기심으로 출발하여 주제에 이여도의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 2장과 3장에서는 예술제를 통하여 이여도의 상징성을 제시하여 그것이 실생활과 병치되면서 6장까지 절망의 내부 이야기로 함축시킬 수 있다. 작가는 절망의 내부 이야기를 끝내고 비로소

45) 박근숙, 『정한숙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1999. pp.49~50.

7장에서 새로운 이여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출시키면서 주제에 근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여기서 이여도의 의미는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꿈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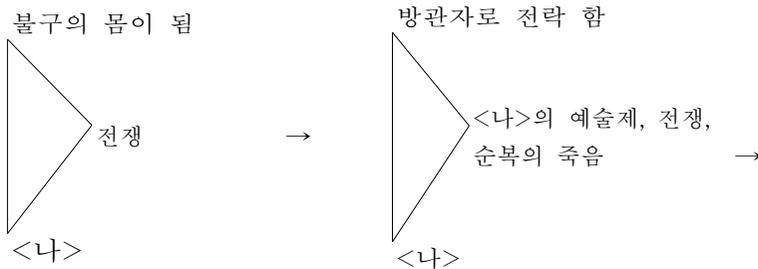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일관성 있게 순서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니다. 작가는 주제 형상화와 작중인물의 욕망과 상상력의 새로운 의미를 위해서 삼중의 시제와 구조의 복잡한 미적 기능을 최대한 살렸다고 볼 수 있다.

2) 실존적 현실 지향의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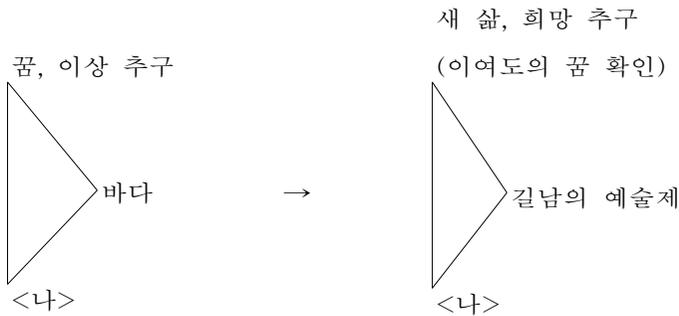
(1) 작중인물의 욕망

이 작품에 등장되는 인물들은 <나>와 상운, 순복, 길자, 길남, 선생님 정도이다. 주인공은 <나>와 순복이가 된다.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며 관찰자 입장이 되어 외부 이야기인 <나>의 이야기로 상황을 설명해 주며,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의식의 흐름에 의해 단순한 내용을 과거, 대과거인 복합적인 과거 회상을 통해 내부 이야기인 순복의 일생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삼중 시제의 과거 회상과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하는 시점의 이동은 이야기에 사실성과 긴장감을 부여해 주고 있다. 초월적 공간을 지향하다가 현실로 되돌아오는 <나>와 순복의 욕망과 갈등 양상을 욕망의 삼각형으로⁴⁶⁾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나>의 욕망 추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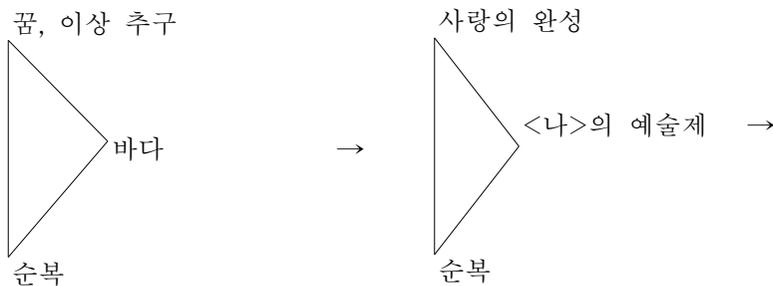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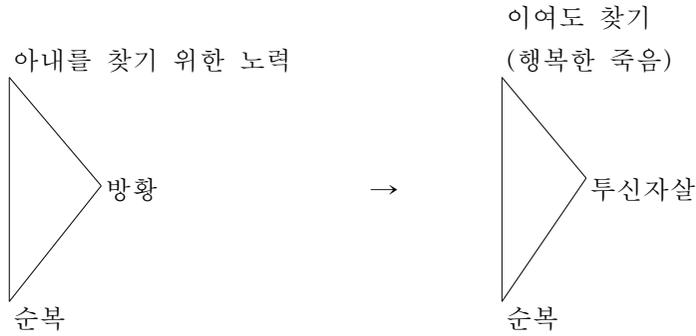
46) 안성수, 앞의 책, pp.115~116.



주인공인 <나>는 이여도의 신비함 때문에 바다로 나갔다가 표류한 이후 이여도의 환상만을 좇으며 사는 현실로부터의 소외자가 되어 방관자적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과거로 거슬러 간다면 어린 시절 예술제에서부터 시작된다. 호동왕자와 시종, 현실에서의 순복과 <나>, 길자와의 사랑과 우정이 서로 병치적으로 나열된다. 시종인 나는 호동왕자인 순복의 죽음을 지켜보게 되는데, 현실에서 또한 순복의 투신자살을 지켜보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쟁으로 불구의 몸이 된 그는 바다와 꿈을 잃고, 친구마저 잃게 되어 현실과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러나 순복의 메모를 보고 순복이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되어 불행이 이중으로 강화되는데, 길남이가 돌아옴으로써 바다를 다시 찾고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을 꿈꾸게 된다. 이 때 순복의 아들 길남이를 통한 이여도의 상징성이 암시되는데, 그것은 곧 현실 속에서의 새 삶을 꿈꾸는 희망과 사랑임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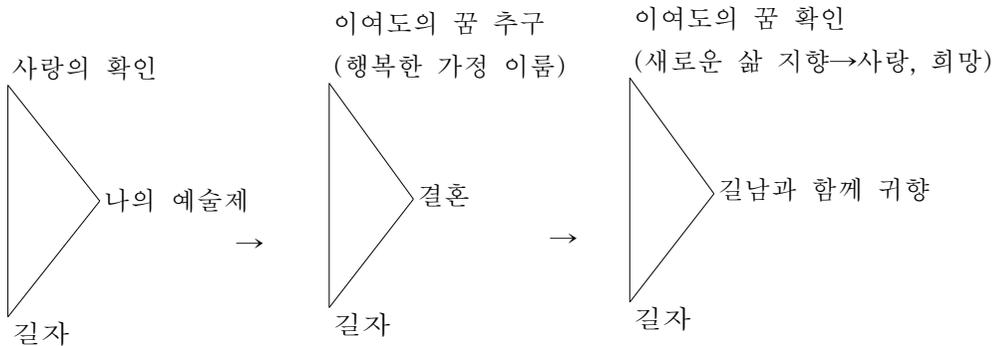
다음은 순복의 욕망 추구 상황이다.





순복도 영근과 함께 이어도의 신비함 때문에 바다로 나갔다가 표류하게 된다. 그 후 예술제를 통하여 길자와의 사랑이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어도를 하나의 사랑의 상징적 의미로 인식하여 둘은 결혼하게 된다. 그는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며 행복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 찾은 것은 상상의 이어도가 아니라 사랑의 이어도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친구 상운은 전사하고 영근은 불구의 몸이 된다. 순복은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사랑을 잃고 방황하다 바다에 투신자살하게 된다. 그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으로 이어도의 심상이 깊게 투영되어 있다.

다음으로 길자의 욕망 추구 상황을 살펴보면 순복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복과 길자는 예술제를 통하여 사랑이 확인되고 성숙하게 된다. 길자는 이어도의 꿈을 이루는 것은 결혼하여 <디딤바위가 서 있는 이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순복에게 고백하여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으로 순복의 행복한 가정은 파괴되고 고향을 떠나게 되어 길자의 이어

도에 대한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세월이 흐른 후 순복의 아들 길남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옴으로써 영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이어도는 아직도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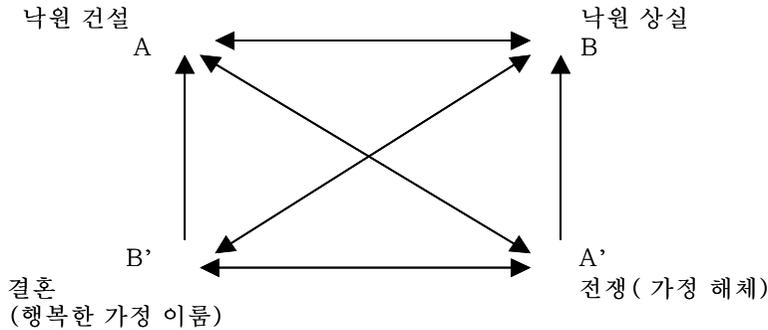
작중인물들의 욕망 추구 과정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갈등 양상과 연계시켜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된다.

(2) 욕망과 갈등의 탐색

작중인물의 갈등 구조 속에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과 동기들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이 소설에서도 <나>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은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심리적인 갈등과 전쟁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겪는 세 가지 유형의 욕망 구조를 보여준다. 주인공 이면서 관찰자인 <나>의 욕망, 내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순복의 욕망, 그리고 순복의 아내의 욕망 구조가 그것이다. 이들의 욕망 구조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중인물들은 어린 시절 이어도를 찾아 모험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그들의 꿈은 바다에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의 예술제로 가까워진 순복과 길자가 결혼하여 이어도의 꿈을 이루고 그들은 희망에 젖는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으로 이어도의 꿈을 잃게 되지만 순복은 그 꿈을 바다에서 다시 찾아 새 희망을 가진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 이어도 뱃노래를 부르다가 바다에서 행복한 죽음을 맞는다. 길자 또한 이루었다고 생각한 이어도의 꿈이 전쟁으로 산산조각 부서졌지만 길남이라는 중개자로 하여 새로운 이어도상을 정립하고 새 생활을 출발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어려서 성장하기까지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최종적으로 정착해야 할 본능적 욕망을 위해서 계속 갈등한다. 결국 순복이가 삶의 고뇌를 잊기 위해 이어도에 회귀함에 따라 <나>도 잃어버린 바다를 다시 찾아 길자, 길남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게 된다.

순복의 죽음 후 길자와 길남이 돌아오고 길남도 <나>에게 끊임없이 접근하여 바다로 나가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망 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욕망과 갈등의 양상을 이항대립 구조⁴⁷⁾를 활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낙원 건설 A는 주체의 욕망 목표로 영근, 순복, 길자가 이루거나 찾고자 하는 낙원이 된다. 낙원 상실 B는 대립자의 욕망 목표로 전쟁 때문에 주체자의 꿈은 무산되어 낙원 건설은 불가능하게 된다. B'인 결혼은 주체의 중개자로 주체의 욕망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A'인 전쟁도 대립자의 중개자로 주체의 욕망 목표인 낙원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낙원 건설과 낙원 상실,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과 전쟁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은 대립관계이고 낙원 상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낙원 건설과 전쟁은 모순관계에 놓인다. 낙원 건설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낙원 상실과 전쟁은 함의(내포) 관계에 놓인다. 인물들은 <디딤바위가 서 있는 이 곳>을 매개로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야기 전체 구조 관점에서 변증법적 발전에 이르게 하는 중개자는 결혼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된다.

순복과 길자는 가정이라는 낙원을 건설하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전쟁 때문에 가정이 해체된다. 전쟁이 끝난 현재에 <나>와 길자의 사랑의 가능성으로 다시 새로운 낙원이 건설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47) 서정철, 앞의 책, pp.275~291.

『아저씨 이여도가 어디 있지요?』

『엄마가 아버지는 이여도에 가 있다던데요..』

『아저씨 오늘 이여도란 섬에 가 봐요.』⁴⁸⁾

노만 프리드만(Norman Friedman)의 플롯 유형으로⁴⁹⁾ 따진다면 이 작품은 행동의 플롯 중에서 감상적 플롯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길남이가 돌아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갈등의 주체는 결말에서 다시 바다를 찾고 미래에 대한 꿈과 이상을 꿈꾸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여도의 의미를 주제로 암시한다. 즉, 순복의 아들 길남이를 통하여 이여도의 상징성은 현실 속에서의 행복한 삶을 보여준다.

3) 현재적 일상 공간의 행복

주제는 제목에 의해 암시되기도 한다. 『IYEU도(島)』의 제목과 모티프는 이여도 전설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여도 전설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고 서로 유인적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제목의 함축적 기능을 통해서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미리 추정할 수 있다.

지리적 환경과 관련된 이여도 전설은 제주인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전설 속의 이여도는 이승과 저승을 동시에 포함한 곳으로 제주인들이 설정한 꿈이자 이상적 낙원 공간이다. 그래서 제주인들은 생전에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이여도에 가기를 희망했으며 죽어서도 이여도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믿음이 강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이여도 전설 모티프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작품으로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 <나>와 순복, 상운 세 사람은 이여도의 환상에 사로잡혀 이여도를 찾아가는 모험을 한다.

그 후 이여도가 현실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세계임을 인식하여 현실 속에서 그들의 꿈을 찾고자 한다. 순복이는 예술제로 가까워진

48) 정한숙, 앞의 책, pp.239~240.

49) 구인환·조남철, 앞의 책, p.120.

길자와 결혼하여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순복이가 찾은 이여도의 꿈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엔 그가 찾는 것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지금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일찌기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해석은 아닌 것 같았다. 그것보다도 중한 그것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있었다.⁵⁰⁾

그러나 전쟁으로 순복의 어머니는 총탄의 파편에 맞아 세상을 떠났고, 순복의 아내는 순복이가 군대로 뽑혀 간 뒤 친정을 따라 피난 간다. 전쟁 후 순복의 행복은 모두 깨지고 만다. 순복은 아내의 행방을 찾아 인천, 서울을 헤매지만 실의와 좌절만을 안고 돌아온다. 순복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어릴 적 표류했을 때 구조해 준 사람들처럼 밀수선을 타기로 하고 바다로 나갔다가 어둠 속에서 바다에 투신자살한다. 이 때 이여도는 신비의 나라로 순복에게는 희망과 꿈의 섬이지만 <나>에게는 비극의 섬이 되는 이중적 의미를 띠게 된다.

이여도그것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섬이다. 그러나 배를 타는 뱃놈은 예로부터 그리던 섬이 분명했다. 이여도의 뱃노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진 몰라도 그리고 보면 우리들의 선조들도 우리들과 같은 모험과 꿈속에 슬픔과 불행을 씹으며 살아간 것만 같았다. 희망과 꿈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의 나라인 이여도...그러나 그 희망과 꿈은 누구도 실현해 보지 못한 비극의 섬이기도 했다. 순복은 무슨 까닭에 종적을 감춘 아내마저도 이여도에서 찾으려고 했을까 51)

순복의 죽음은 누가 뭐라든 간에 행복한 죽음이었던 것만은 틀림

50) 정한숙, 앞의 책, p.193.

51) 정한숙, 위의 책, pp.193~194.

없었다. 마음속에 행복이 깃들지 않고서는 잠자듯 눈이 감겨졌을 리
가 없을 것이다.⁵²⁾

이 소설에서 작가가 형상화한 이여도의 의미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작가가 형상화한 이여도는 신비로운 비밀이 있는 곳으로 어부라면 누구나 동경하여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 곳은 전설의 섬으로 찾을 수 없는 곳이다. 작가는 예술제를 통해서 순복과 길자의 사랑이 발전하여 그들의 결혼이 이여도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형상화한다. 순복과 길자가 결혼하여 가장 행복한 시기로 <디딤바위가 서 있는 마을>에서 가정생활을 할 때 이여도의 꿈은 이루어진다. 영근의 서술로 미루어 이여도는 순복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내, 길자와의 사랑으로 암시된다.

둘째로 이여도는 순복의 투신자살과 관계가 있다. 그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후 희망과 이여도의 꿈을 상실하지만, 이여도 뱃노래를 부르며 헤매다가 투신자살한다. 그가 계속 바다에 머물면서 찾아 헤맨 것은 전설의 섬 이여도였던 것이다. 순복은 결국 죽음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인 이여도로 회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여도는 <나>가 외로운 등대수로서 길남이란 등불을 지키며 살아갈 새로운 이여도 상을 제시하고 있다. 길남의 예술제를 통해서 이 곳 <디딤 바위가 서 있는 마을>에서 희망을 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낙원인 이상향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바로 이 곳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여도를 작가가 현대적으로 해석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여도는 전설 속의 섬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의 이상적인 공간, 또는 희망, 꿈, 사랑 등으로 상징된다. 작가는 현실 세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상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 이여도의 꿈이 완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52) 정한숙 위의 책, p.207.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이여도라는 이상세계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진취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이청준의 『이어도』

이 소설은 추리소설처럼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풀려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어도의 현대적 의미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어릴 적부터 주인공의 의식을 지배해 온 전설 속의 이어도를 찾아 떠난 천남석 기자의 행적과 사고가 미스터리로 남게 된다. 초현실적 의식에 바탕을 둔 제주도 사람 양주호 국장과 현실과 과학에 입각한 선우 중위의 유추적 상황을 대응시키면서 주인공인 천남석 기자의 정신세계를 의미망의 요약과정을 통하여 추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천남석 기자의 정신세계를 파헤침으로써 이어도의 의미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죽음과 낙원 찾기 구조

(1) 의미망의 요약

1장 (과랑도 탐색 후 죽음을 선택함)

- ① 해군함정의 과랑도 수색작전 실패.
- ② 천남석 기자의 해상 실종 사고.
- ③ 선우현 중위 남양일보사 양주호 국장 방문.
- ④ 양주호 국장은 천남석 기자의 실종을 자살로 추정함.
- ⑤ 사고 전날 밤 선우 중위는 천남석 기자와의 대화 전해 줌.
- ⑥ 천남석 기자와의 대화에서 절망감을 느꼈음.

2장 (이어도에 대한 허구성 인식함)

- ⑦ 천남석 기자는 섬을 찾을 수 없음을 확신함.
- ⑧ 천남석 기자는 섬을 기다림.
- ⑨ 천남석 기자는 술을 마시며 부재가 확인된 이어도의 위험스러운 허구에 대하여 말함.
- ⑩ 천남석 기자는 죽음의 섬인 까닭을 말함.
- ⑪ 천남석 기자의 죽음은 절망적인 이어도가 열쇠라고 생각함.

3장 (이여도의 부재가 확인되자 황홀한 절망을 하고 투신자살함)

- ⑫ 선우현 중위는 술집 <이여도>에서 술을 마심.
- ⑬ 선우현 중위는 술집 <이여도>와 섬 이여도의 구별이 모호함.
- ⑭ 양주호 국장은 <이여도> 여인에게 천남석 기자의 죽음을 알림.
- ⑮ 양주호 국장은 천남석 기자가 혼자 이여도를 찾아냈다고 함.
- ⑯ 양주호 국장은 천남석 기자가 섬을 찾아냈기에 황홀한 절망을 했다고 함.
- ⑰ 양주호 국장은 천남석 기자의 죽음이 이여도를 살려냈다고 함.

4장 (부모님의 한이 나의 한이 되어 쌓임)

- ⑱ 양주호 국장은 선우현 중위가 만날 사람은 천남석 기자의 여자라고 함.
- ⑲ 양주호 국장은 천남석 기자의 어린 시절을 말함.
- ⑳ 천남석 기자의 어머니는 이여도 노랫가락을 부르며 돌을 추러냄.
- ㉑ 천남석 기자의 아버지는 이여도를 찾아 떠나감.
- ㉒ 천남석 기자의 어머니는 밭이랑 사이에 쓰러져 죽음.

5장 (이여도의 부재로 불안과 초조감이 심화됨)

- ㉓ 양주호 국장은 선우현 중위를 천남석 기자의 오두막으로 데려감.
- ㉔ 선우현 중위는 여자를 만나 사고 경위를 전함.
- ㉕ 천남석 기자는 사고 전 날 선우현 중위에게 부정적인 어조로 이여도에 대하여 말함.
- ㉖ 천남석 기자의 이여도에 대한 생각은 자신을 이기기 위한 치열한 싸움임.
- ㉗ 천남석 기자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극에 달함.
- ㉘ 천남석 기자는 이여도의 부재가 확인되는 순간 비로소 섬을 보았다고 함.
- ㉙ 선우현 중위는 천남석 기자의 여자와 동침함.

6장 (자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㉔ 여인은 비로소 입을 열어 천남석 기자와의 관계를 말함.
- ㉕ 선우현 중위는 양주호 국장을 만남.
- ㉖ 여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선우현 중위가 소식을 전달한 것임.
- ㉗ 천남석 기자는 이여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름.
- ㉘ 천남석 기자는 이여도의 허무한 꿈을 몸소 실천함.
- ㉙ 천남석 기자는 섬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이 불가피함.
- ㉚ 양주호 국장은 사실에서 보다 허구 쪽에서 진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고 함.

7장 (시체가 떠오름으로써 이여도의 의미 암시)

- ㉛ 다음날 선우현 중위는 떠남.
- ㉜ <이여도> 여인은 제주도를 떠나지 않음.
- ㉝ 양주호 국장은 매일 <이여도> 술집에서 술만 마심.
- ㉞ 천남석 기자는 이여도 사람이 되어 있음.
- ㉟ 제주도 해안가에 천남석 기자의 시체가 떠오름.

이상의 요약을 통하여 이 소설의 의미망은 1장 (파랑도 탐색 후 죽음을 선택함) → 2장 (이여도에 대한 허구성 인식함) → 3장 (이여도의 부재가 확인되자 황홀한 절망을 하고 투신자살함) → 4장 (부모님의 한이 나의 한이 되어 쌓임) → 5장 (이여도의 부재로 불안과 초조감이 심화됨) → 6장 (자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7장 (시체가 떠오름으로써 이여도의 의미 암시함)으로 정리된다.

1장에서 천남석 기자의 죽음은 이야기를 풀리게 하는 개연적 동기를 부여한다. 3장과 5장에서 선우현 중위의 의식은 양주호 국장을 통해 점차 확대되어 눈에 보이는 사실 세계와 눈으로 볼 수 없는 허구 세계를 역설적으로 해석하고 반증하는 능력까지 획득한다.

따라서, 1장에서 천남석 기자의 자살은 양주호 국장과 선우 중위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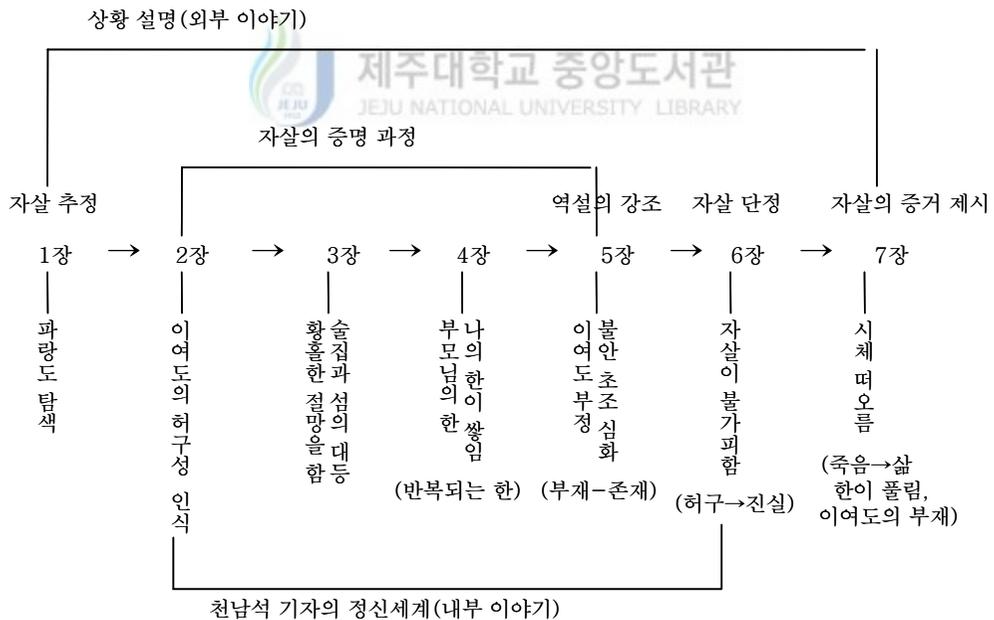
해 그의 정신세계가 밝혀짐으로써 유추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의 의미는 7장에서 그의 시체가 제주 해안가에 떠오름으로써 증명된다.

이제, 이야기의 구조 탐색을 통하여 천남석 기자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여도의 의미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2) 이야기의 구조 탐색

이 이야기는 천남석 기자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1장 천남석 기자의 자살 추정에서 그것을 2장에서부터 5장까지 천남석 기자의 정신세계를 파헤치며 증명해 가는 과정을 거쳐 6장에서 그의 죽음을 단정하게 된다. 7장에서 천남석 기자의 시체가 떠오르게 한 것은 5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플롯의 구조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여도』의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대립적 이미지는 부재와 존재, 과학과 추정, 허구와 진실 등이다. 대립적인 이미지는 외부 이야기를 하는 선우현 중위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천남석 기자의 자살을 단정하며, 이여도

의 존재를 믿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장에서의 기능은 양주호 국장과 선우현 중위의 의식의 대립이다. 과학과 합리를 떠나 천남석 기자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상황이 전개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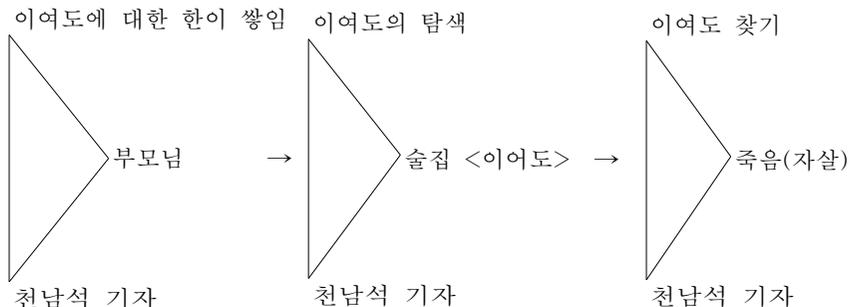
2장은 이어도의 허구가 오히려 절망적인 죽음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역설과 반증이 시작되는 곳이다. 3장과 4장, 5장은 액자 속의 내부 이야기로서 독자에게 신뢰성과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부모님의 이어도에 대한 한이 천남석 기자에게 대물림되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러 그의 이어도에 대한 정신세계의 심화적 단계로 두려움과 초조함이 극에 달하여 자신과의 싸움이 치열해진다. 6장에서는 주인공이 자살을 통하여 이어도의 허구성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7장에서는 천남석 기자의 시체가 떠오름으로써 이어도의 부재를 증명하게 된다.



2) 역설적 낙원 탐구의 욕망

(1) 작중인물의 욕망

이 작품에서 행위자로 등장하여 욕망을 생산하는 인물은 천남석 기자이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그의 욕망은 달라지고 있다. 욕망생성 과정과 변화를 비이념적 욕망분석법⁵³⁾에 따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53) 안성수, 앞의 책, pp.115~116

욕망의 주체인 천남석 기자는 아주 오래 전에 아버지가 이여도를 찾아 떠나간 사실이나 어머니가 이여도 민요를 부르다 죽은 사실이 한이 되어 가슴에 쌓이게 된다. 따라서 이여도 찾기의 과제는 그에게 운명처럼 떠나지 않고 괴롭힌다. 어른이 되어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여도에 대한 한 때문에 섬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의 여자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 방법이 다를 뿐 천남석 기자는 술집 <이여도>, 섬 이여도를 중개자로 하여 섬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여 자신과 다른 운명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이것은 그의 욕망과 삶의 목표가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파랑도의 수색작전으로 섬의 부재가 확인되자, 그의 무의식 속에 어릴 때부터 내재된 이여도 섬을 찾아 떠나버린 것도 이여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행동은 제주도에서만 자라온 천남석 기자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며,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이여도 전설의 의미를 수용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천남석 기자의 죽음은 그의 한풀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여도의 부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로도 볼 수 있다. 이제, 천남석 기자의 욕망과 갈등을 통합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써 이 작품이 지향하는 이여도의 의미에 근접해 보려고 한다.

(2) 욕망과 갈등의 탐색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천남석 기자는 어릴 때부터 그의 의식을 지배해 왔던 이여도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나, 오히려 더 이여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부터 천남석 기자의 갈등 구조가 나타나게 되며, 이여도의 존재는 이미 비현실적인 허구의 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원망(願望)이 함축된 현실의 한 부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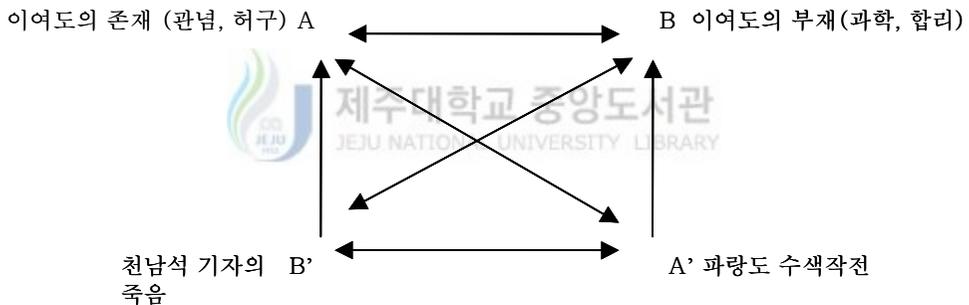
섬 이여도, 술집 <이여도>와 천남석 기자의 어머니나 그의 여자인 술집 여자가 부르던 전래 민요의 이름도 이여도다. 이것들은 동일한 상징성을 가지고 천남석 기자의 생활을 괴롭힌다. 이를테면, 주인공으로 하여금 이여도의 공간을 그리워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어줌으로써 갈등을 심화시

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주인공은 슬집과 섬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불안과 초조감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선우현 중위의 파랑도 수색작전을 통해서 이어도의 부재가 확인됨으로써 해소될 기미를 보인다. 그러나 천남석 기자는 여전히 이상 세계에 머물면서 관념적이고 허구적인 이어도의 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함정이 이어도의 부재를 확인하는 순간 바다에 투신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자살은 이어도의 실재를 믿고 있던 그에게 이어도의 부재를 입증하는 사건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이항대립 구조⁵⁴⁾를 활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섬의 존재는 주체의 욕망목표이고, 섬의 부재는 대립자의 욕망목표이다. 파랑도 수색작전은 이어도가 부재함을 증명하는 중개자로서 기능한다면, 천남석 기자의 죽음은 이어도가 관념이 아닌 현실 속에 주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중개자가 된다.

그러므로 섬의 존재와 부재, 천남석 기자의 죽음과 파랑도 수색 작전은 각기 서로 대립관계이고, 섬의 부재와 천남석 기자의 죽음, 섬의 존재와 파랑도 수색 작전은 각기 모순관계에 놓인다. 그리고 섬의 존재와 천남석 기자의 죽음, 섬의 부재와 파랑도 수색 작전은 서로 함의 관계에 놓이게

54) 서정철, 앞의 책, pp.275~291.

된다.

천남석 기자는 파랑도 수색작전에서 과학적으로 섬의 부재를 확인하고 나서, 투신자살과 함께 제주도 해안가에 떠오른 자신의 시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바다 속의 이여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여기서 섬의 존재는 죽어서나 확인할 수 있는 허구의 섬으로서 천남석 기자의 의식 속에 내재된 이여도를 지시한다.

이야기 전체 구조의 관점에서 변증법적 발전에 이르게 하는 중개자는 천남석 기자의 투신자살이 된다. 여기서 천남석 기자의 죽음의 의미는 그가 이여도를 현실 공간에서 찾지 않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작중인물의 욕망과의 갈등 구조는 주제의 의미 탐색에 좀 더 근접하는 유용한 통로를 만들어 준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 속에 흐르는 이여도의 의미를 주제와 연결시켜 심층적으로 밝혀내기 위하여 주제의 형상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실존 공간으로서의 낙원

작가는 이 작품의 서두에서 제목과 모티프를 이여도 전설에서 취하고 있음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여도 전설과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여도는 제주인들의 이상적인 낙원공간으로서 제시된다. 출항한 배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곳에 가서 재난을 피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겠거니 자위하며 기대하는 제주인들의 보편적인 믿음 속에서 확인된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승 세계인 이여도에서 삶을 지속한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슬픔을 견디는 힘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현실에 대한 불만과 고통이 클수록 이여도에 대한 강한 집착과 욕망이 믿음으로 나타나서 이여도는 낙원 공간인 이승과 저승을 동시에 포함하게 되는 양가성을 함유한다.

이 소설은 추리소설처럼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풀려가는 과정을 통하여 주제를 형상화 한다. 전설로 내려오는 이여도의 상징적 의미를 주인

공 천남석 기자의 행적이나 사고와 연결시키기 위해 작가는 제주도 사람 양주호 국장의 입을 빌어 이어도를 표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사실이라는 걸 단념하십시오. 사람들은 때로 사실에서보다는 허구 쪽에서 진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 때 사람들은 그 허구의 진실을 사기 위해서 쉽사리 사실을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요. 천남석이 이어도를 만난 것도 아마 그 사실이라는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가 주변의 가시적 현실을 모두 포기해 버렸을 때 그에게 섬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당신도 아마 그것을 포기하고 나면 보다 쉽게 천남석의 자살을 믿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⁵⁵⁾

여기서 양주호 국장은 이어도는 현실 상황을 외면해야 비로소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나, 작가는 오히려 현실 속에 존재함을 역설한다.

술집 <이어도>도 환상의 섬 이어도와 다름없이 현재의 고된 삶을 참아 내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천남석 기자의 어머니나 그의 여자인 술집 여자에게 이어도 노래는 현실 속의 어려움을 잊게 해주는 중개자로서 기능한다. 입에서 웅웅거리는 이어도의 노랫가락이 쉴 새 없이 번져 나오는 것도 현재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부른 노래이다. 또한, 천남석 기자의 여자와 ‘천가여, 천가여’를 부르며 돌 자갈을 나르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어도 섬을 찾아 떠나 버린 아버지는 이어도의 환상에 젖어 사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어도는 천남석 기자의 의식 속에 신비로운 환상의 섬으로 각인되어 남아 있게 된다.

“나 이어도를 보았네”

소년의 아버지는 정말로 이어도를 보고 돌아왔노라는 것이었다. 몹

55) 이청준, 앞의 책, p.382.

쓸 바람을 만나 배가 부서졌는데, 소년의 아버지는 물로 뛰어들어 무작정 어디론가 헤엄을 쳐 나가고 있었다 했다. 한참 그렇게 헤엄을 쳐 나가다가 기진맥진 힘이 다 풀릴 때쯤 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다 저쪽 파도 끝에 문득 하얗게 부서지고 있는 섬이 떠올라 있더라고 했다. <하락>-56)

“- 이어도하라 이어도하라
이어 이어 이어도하라
이어 하멘 나 눈물난다.
이어 말은 말낭근 가라“57)

그러나 천남석 기자는 이어도가 허구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어도를 찾아나설 수밖에 없는 타고난 운명의 소유자임을 역설한다.

“배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라뇨?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타고난 운명이 어디 있단 말요. 운명은 타고나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섬이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도의 환상이 그 허망한 마술로 사람들을 섬에서 떠나지 못하게 묶어 놓고 끝끝내 배만 타게 만들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길고 짧은 생애들을 고스란히 이 섬 위에서 견디게 했다가 종내는 그 죽음의 섬으로 가엾은 생명들을 흘려가고 있었던 거란 말예요.”58)

그 뿐만 아니라, 양주호 국장이나 선우현 중위 또한 이어도에 관한 인식이 이상과 현실의 모호한 경계 지점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설명되지 않은 제주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이어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서술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56) 이청준, 위의 책, p.361.

57) 이청준, 위의 책, p.350.

58) 이청준, 위의 책, p.344.

“국장님은 …… 앞으로 <이어도>엘 가지게 될까요?”

“글쎄요 아마 그렇게 되겠지요.”⁵⁹⁾

천남석 기자는 사랑하는 여인마저도 이 곳을 떠날 것을 종용하며 여인에게 협박과 설득을 반복하며 이곳이 이어도가 아님을 보여주려고 한다. 여기서 천남석 기자에게는 술집 <이어도>와 섬 이어도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과 증오의 공간임을 보여준다.

여인에게 섬을 떠나라고 매일같이 <이어도>를 찾아와서 그녀를 못 견디게 했다고 했다. 여인이 섬을 떠나주지 않으면 자기까지 괜히 섬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는 배를 타기 전날까지도 두고두고 그런 식으로 협박과 설득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⁶⁰⁾

이는 앞서 언급했지만, 여인과 술집 <이어도>는 천남석 기자에게 이어도를 상징하는 일종의 등가물이자 객관적 상관물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어도를 증오하며 갈구하는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한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작용한다. 여기서 천남석 기자의 심리구조 속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대립적 이미지는 그가 여인과 이어도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이어도의 존재 역시 역설적 방법에 의해서 입증해 보이는데 그것이 곧 그의 투신자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어도의 부재를 확인하는 순간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천남석 기자가 이어도라는 환상적 낙원의 공간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꿈 역시 현실적으로 그들이 삶의 고달픔을 이기고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대응방식이다. 작중인물로 상징되는 제주인들에게 그들의 고된 삶이란 역사적으로 수 없이 수탈을 당한 지배층에 대한 한(恨), 노동

59) 이청준, 위의 책, p.377.

60) 이청준, 위의 책, pp.348~349.

에 대한 한(恨), 척박한 땅에 대한 한(恨)⁶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을 삭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여도라는 낙원을 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천남석 기자가 낙원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여도의 이상적 공간을 지나치게 관념화 하는 것을 경계한다. 죽은 천남석 기자의 시체가 제주 해안에 떠올라 머물게 함으로써 이여도는 인간의 현재적 삶이 있는 바로 제주 섬에서 찾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학적인 해군함정의 수색 작전으로도 이여도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작가는 전설 속의 이여도와 현대소설 속의 이여도에 대한 인식의 거리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전략> 기이한 일이었다. 한데 더욱더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조화는 그 여러 날 동안의 표류에도 불구하고 천남석의 육신은 그 먼 바닷길을 눈에 띄는 상처 하나 없이 고스란히 다시 섬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아침해가 돌아오를 때까지도 그 심술궂은 썰물 물 끝에 얹혀 용케도 다시 섬을 떠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⁶²⁾

결국 작가의 지나친 주제의 노출로 천남석 기자의 시체가 제주 섬으로 떠오른 것은 그가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공간이면서도 역설적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공간임을 지시한다. 작가는 이 소설 속에서 이여도를 상상 속에서 아닌 현재적 삶이 있는 제주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남김으로써 주제를 완성한다.

-<전략> 그것도 아니면 그가 그토록 떠나고만 싶어했던 이 섬을 거꾸로 그 이여도로나 착각을 한 것일까.⁶³⁾

61) 최혜실, 앞의 논문, p.315.

62) 이청준, 앞의 책, p.383.

이러한 해석은 이미 앞에서 고찰 해본 『화산도』와, 『IYEU島』에 나타난
이여도의 의미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63) 이청준, 위의 책, p.383.

4.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제주도의 토속적인 여인 억순과 빌레의 생활을 대조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주인공은 과부로 살면서 가난과 여러 가지 개인적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것은 과거 제주여인들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주 여인들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상향을 갈망하면서, 이어도 민요를 부르며 심정을 달랜다.

작가는 제주도 출신으로 구전되어지는 이어도의 의미를 제주도 여인의 실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처럼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결말에서 억순은 좌절과 절망의 부정적인 공간 현실을 초월하여 자신의 구원을 얻고자 죽음을 선택한다.

이는 작가가 이어도를 죽음을 초월한 공간, 구원의 섬으로 그리기 위한 전략과 관계된다. 이제, 제주인들에게 구전되어지는 이어도가 어떤 의미로 수용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의미망을 분절하여 요약해 보겠다.

1) 적극적인 삶과 낙원 찾기 구조

(1) 의미망의 요약

1장 (가난 때문에 현실생활이 고통스러움)

- ① 억순은 조반 전에 밭일을 하고 돌아 옴.
- ② 억순은 높새바람 때문에 물질 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 함.
- ③ 억순은 내일 일에 걱정이 앞섬. (남편의 제사상 준비, 을선 남매 사친회비 마련, 초가지붕 이엉 덮기 등)
- ④ 을선이 사친회비를 못 내어 학교에서 쫓겨남.
- ⑤ 억순은 물질을 배우지 않겠다는 을선을 때림.
- ⑥ 이때 기둥에 걸어 두었던 뒤옹박이 떨어짐. (결말의 복선)

2장 (처음으로 빌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김)

- ⑦ 빌레가 장 구경 가자고 제의함. (대조적인 삶)
- ⑧ 어린 시절부터 빌레와 역순은 붙어 다니며 물질을 함.
- ⑨ 둘은 남편 제사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물질하기로 함. (화해)

3장 (역순과 다른 삶을 사는 빌레를 보며 갈등을 느낌)

- ⑩ 둘은 이웃 남정네와 결혼했으나 같은 해에 청상과부가 됨.
- ⑪ 빌레가 대국놈의 첩이 되어 아들을 낳고 편히 지냄. (갈등 조짐)
- ⑫ 그 후 역순은 빌레를 상대하지 않음.
- ⑬ 남편의 경제력으로 안락해진 빌레가 역순의 땅을 사고 새 집을 지어 이사 옴.
- ⑭ 역순은 선망의 눈으로 빌레를 보며 마음의 구멍이 생긴.

4장 (목숨을 무릅쓰고 물질을 생계의 수단으로 함)

- ⑮ 역순은 보채는 자식을 달랜 뒤 물질하러 감.
- ⑯ 역순은 이동영화반이 오면 마음이 심란함.
- ⑰ 역순은 이동영화반에 길수가 구멍치기 하다가 신발을 빼앗기자 가서 찾아 준 일을 회상함.
- ⑱ 역순은 그 때 편지하곤했다던 그 녀석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리워함.

<5장> (이여도가 보이기를 기다리며 지난 일을 회상하고, 삶의 비장함을 보임)

- ⑲ 역순은 이여도가 물에 잠겨서 물질을 못하고 계속 기다림.
- ⑳ 빌레가 이여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돌아감.
- ㉑ 역순은 빌레 남편과 조 파종하러 가서 부부처럼 행동함.
- ㉒ 역순이 빌레 남편과 갈등하기 시작함. (심리적인 변화가 옴)
- ㉓ 역순은 떡 감으러 갔다가 빌레네를 목격함.
- ㉔ 역순은 질투심을 느끼며 돌아옴.

6장 (구원의 상징인 이여도를 그리워함)

- ㉕ 이여도는 해맑은 날에만 하늘과 수평선이 마주 붙은 사이에 나타남.
- ㉖ 이여도는 미역이며 소라, 전복이 많은 보물섬임.
- ㉗ 이여도는 아직 아무도 가 본 사람이 없음.
- ㉘ 이여도는 배를 타고 가면 갈수록 수평선 너머로 물러앉음.
- ㉙ 억순은 해녀들의 이여도 노래 가락에 맞추어 바다 멀리 헤엄쳐 감.

7장 (이여도를 찾아가다가 표류함)

- ㉚ 억순의 그물 망사리가 목직함.
- ㉛ 억순은 남편 제사상과 사친회비를 마련할 수 있어 만족함.
- ㉜ 억순의 몸이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음.
- ㉝ 억순의 뒤통박 꼭지 부분에 팔알만큼 생채기가 나 있음.
- ㉞ 억순은 구조를 요청하나 아무도 모름.
- ㉟ 억순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한이 있어도 헤엄쳐 가기로 마음먹음.
- ㊱ 억순은 이여도 노래를 부르며 쉬지 않고 헤엄쳐 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



그러므로 이 소설의 의미망은 1장 (가난 때문에 현실생활이 고통스러움)→ 2장 (처음으로 빌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김) → 3장 (자기와 다른 삶을 사는 빌레를 보며 갈등함)→ 4장 (목숨을 무릅쓰고 물질을 생계의 수단으로 함) → 5장 (비장감 속에서 이여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지난 일을 회상함)→ 6장 (구원의 상징인 이여도를 그리워함)→ 7장 (이여도를 찾아가다가 표류함)으로 요약된다.

주인공의 고난의 삶은 2장에서 남편이 고기잡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부터 극대화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제주 여인의 삶을 전형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억순의 고달프고 힘든 삶과 일상적인 일을 현재, 과거, 과거, 현재의 시간 순서에 따라 시간착오의 역전기법을 활용하여 조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인공은 과거의 가난한 삶의 회상을 통하여 현실의 고난과 불행이 보다 누적적으로 환기됨으로써 미지의 낙원인 이여도 찾기의 욕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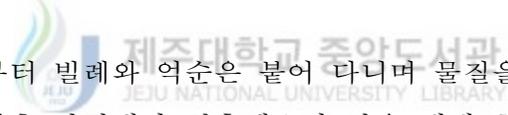
강화된다.

이제, 의미망을 해체시켜 스토리 라인을 찾아내고 플롯 라인과 대비시켜 봄으로써 이 소설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방식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작품의 주제 탐색과 미학적 해명에 유용하다.

(2) 이야기의 구조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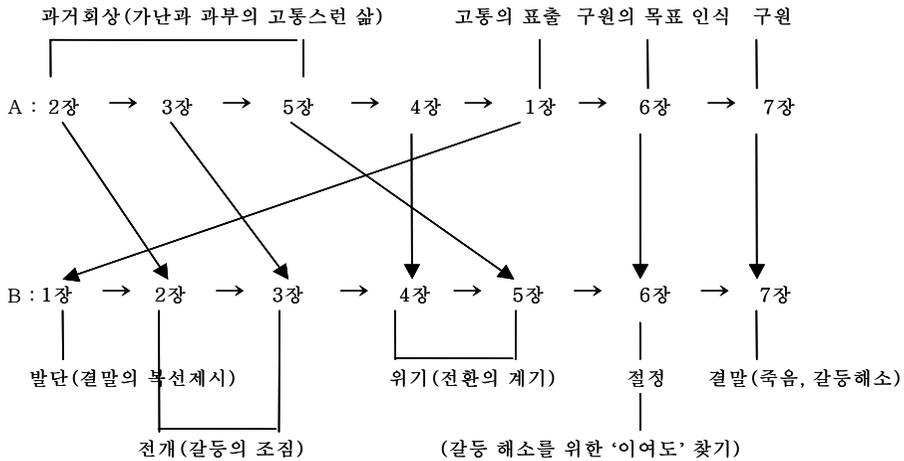
이 소설은 역순이라는 주인공이 20세에 청상과부가 된 후 위험한 물질을 생계 수단으로 삼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여 년간 두 아이를 키우며 수절하는 생활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을 낳는다. 예컨대, 자신의 삶이 첩살이로 들어간 빌레의 생활과 병치되면서 역순의 생활은 더욱 처량하게 인식된다.

이야기의 구조 파악을 위해 주인공의 삶과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스토리 라인으로 재구성 해보면 다음과 같다.

- 
- ⑧ 어린 시절부터 빌레와 역순은 붙어 다니며 물질을 함.
 - ⑩ 둘은 이웃사촌 남정네와 결혼했으나 같은 해에 청상과부 됨.
 - ⑪ 빌레가 대국놈의 첩이 되어 아들을 낳고 편히 지냄. (갈등 조짐).
 - ⑫ 그 후 역순은 빌레를 상대하지 않음 .
 - ⑬ 남편의 경제력으로 안락해진 빌레가 역순의 땅을 사고 새 집을 지어 이사 옴.
 - ⑭ 역순은 선망의 눈으로 빌레를 보며 마음의 구멍이 생김.
 - ⑮ 역순은 빌레 남편과 조 과종하러 가서 부부처럼 행동함.
 - ⑯ 역순은 빌레 남편과 갈등이 시작됨. (심리적인 변화가 옴)
 - ⑰ 역순은 떡감으러 갔다가 빌레네 목격.
 - ⑱ 역순은 질투심을 느끼며 돌아옴.
 - ⑲ 역순은 조반 전에 밭일을 하고 돌아 옴.
 - ⑳ 역순은 늙새바람 때문에 물질 때를 놓친 것이 안타까움.
 - ㉑ 역순은 내일 일에 걱정이 앞섬. (남편의 제사상 준비, 을선 남매 사친회비 마련, 초가지붕 이엉 덮기 등)

- ④ 사친회비를 못 낸 을선이 학교에서 쫓겨남.
- ⑤ 역순은 물질을 배우지 않겠다는 을선을 때림 .
- ⑥ 이때 기둥에 걸어두었던 뒤옹박이 떨어짐.
- ⑦ 빌레가 장 구경 가자고 제의함. (대조적인 삶)
- ⑨ 둘은 내일 남편 제사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이 물질하기로 함.
(화해)
- ⑮ 역순은 보채는 자식을 달랜 뒤 물질하러 감.
- ⑯ 역순은 이동영화 반이 오면 마음이 심란함.
- ⑰ 역순은 이동영화 반에 길수가 구멍치기 하다가 신발을 빼앗기자 가서 찾아 준 일을 회상함.
- ⑱ 역순은 그 때 편지하겠다고던 그 녀석의 얼굴이 겹침을 기억하고 그리워함.
- ㉕ 이어도는 해맑은 날에만 하늘과 수평선에 마주 붙은 사이에 나타남.
- ㉖ 이어도는 미역이며 소라, 전복이 많은 보물섬임.
- ㉗ 이어도는 아직 아무도 가 본 사람이 없음.
- ㉘ 이어도는 배를 타고 가면 갈수록 수평선 너머로 뒤 물러앉음.
- ⑲ 역순은 이어도가 잠겨서 물질을 못하고 계속 기다림.
- ⑳ 빌레가 이어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돌아감.
- ㉙ 역순은 이어도 노래 가락에 맞추어 바다 멀리 헤엄쳐 감.
- ㉚ 역순의 그물 망사리가 묵직함.
- ㉛ 역순은 남편 제사상과 사친회비를 마련할 수 있어 만족함.
- ㉜ 역순의 몸이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음.
- ㉝ 역순의 뒤옹박 꼭지 부분에 팔알만큼 생채기가 나 있음.
- ㉞ 역순은 구조를 요청하나 아무도 모름.
- ㉟ 역순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한이 있어도 헤엄쳐 가기로 마음먹음.
- ㊱ 역순은 이어도 해녀 노래를 부르며 쉬지 않고 헤엄쳐 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

이것을 플롯 라인과 대비시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A : 스토리 라인
B : 플롯 라인

1장은 스토리의 이야기 발생 순서로 본다면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1장은 결말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의 기능이 주어져 있다. 이것은 이여도의 형상화를 위해 그것의 배경을 미리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1장에서 주인공은 남편의 기일 준비와 사친회비를 못내 학교에서 쫓겨난 을선, 길수를 위해서나 목숨을 바다에 내놓고라도 물질을 할 수 있는 사실을 그나마 행운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2장과 3장에서는 주인공과 대조되는 삶을 살아가는 빌레와의 갈등으로 주인공의 삶은 더 비참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 남자의 얼굴이 겹쳐오기도 하며 빌레 남편으로 하여 젊은 과부의 고통은 극에 달한다. 주인공의 고통은 현재에 해당하는 1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해당되는 2장 남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3장에서는 주인공과 대조적으로 사는 빌레와의 갈등이 시작되며, 4장과 5장에서는 빌레 남편으로 하여금 가난한 생활에 대한 고통과 함께 역순은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며 위기를 맞는다. 그러한 위기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빌레와 같은 양상의 삶을 추구하려 하지만 역순은 실패하게 된다. 구원의 상징성으로 6장에서 이여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며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역순은

고통의 어느 일부도 해결해 보지 못하고 결국, 7장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2) 원초적 욕구 충족의 욕망

(1) 작중인물의 욕망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역순이며 부인물은 빌레와 빌레의 남편이다. 이 인물들은 평면적인 인물로 심성이 선한 편이다. 발일과 물질을 병행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주인공 역순이는 제주의 토속적 인간상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생활력이 강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역순과 빌레는 대조되는 삶의 방식으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행위는 단순한 욕망 추구 방식이 아니라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주인공 역순의 욕망은 가난과 과부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표출된다. 가난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난 을 선이를 때리는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 돈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타난다. 또 젊은 과부이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도 빌레와 빌레 남편을 바라보는 데서 극대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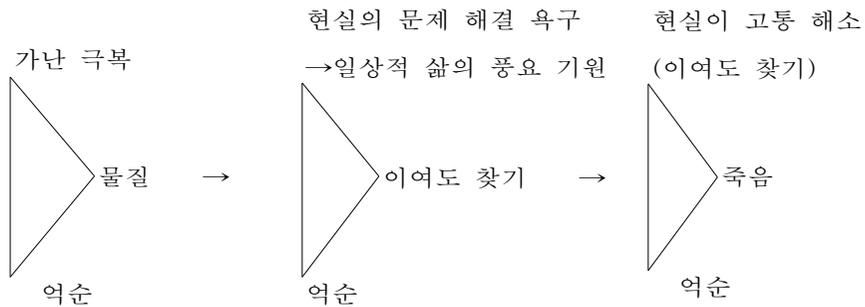
이 두 가지 욕망은 해소 불가능하지만, 물질이라는 중개자를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그의 욕망 행위는 쉽게 이를 수 없다. 결국 이 욕망 행위는 내면적 구원의 공간인 이여도 찾기에 귀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여도는 현실 극복 의지의 상징으로 현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결말에서 역순이가 죽음으로써 도달한 곳이 된다.

빌레는 전 남편이 죽은 후 자식까지 있지만 역순과는 대조적으로 재혼한다. 비록 풍요롭지는 않지만 남편과 만족한 생활을 누린다. 그의 욕망은 남편이라는 중개자를 통하여 아들을 얻고 편한 생활을 영위한다. 빌레의 욕망은 이처럼 단순하며 외적인 현실생활에서 달성되었다. 이것은 주인공 역순의 욕망과는 대조적이어서 빌레와의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역순이도 빌레의 남편을 중개자로 하여 빌레의 욕망에 근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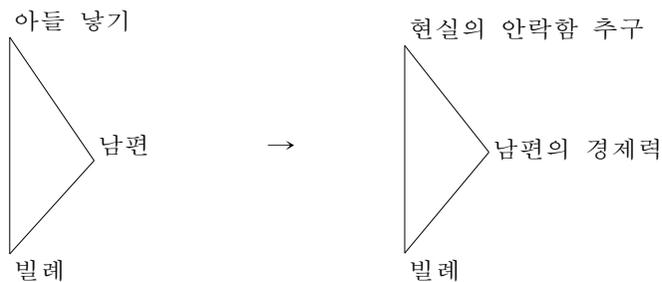
보려고 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그의 욕망은 심리적인 거리감을 두고 있어 실패하게 된다. 빌레 남편의 욕망은 빌레를 중개자로 하여 아들을 얻는데 그치고 있으며 또 다른 욕망을 위한 행위나 주인공들과의 어떠한 갈등도 피하고 있다.

이것을 욕망생성 과정과 변화를 추적하여 삼각형⁶⁴⁾으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순의 욕망의 삼각형을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욕망의 주체는 역순이 되며 중개자는 주체의 욕망을 도와주는 순수한 협조자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역순이 생계 수단으로 삼는 물질과 이여도 찾기, 그리고 일상적 풍요 공간으로 상징되는 이여도에 도달하게 만든 죽음이 이에 해당한다. 욕망 목표는 역순이 중개자의 도움을 받아 이룬 삶의 목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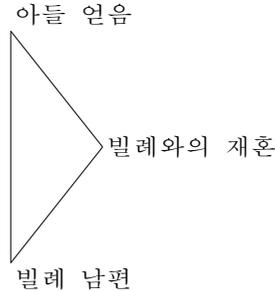
다음은 빌레의 욕망 추구 상황이다. 그녀는 남편과 남편의 경제력을 중개자로 하여 각각 아들 낳기와 현실의 안락함 추구를 욕망의 목표로 삼고 있다.



64) 안성수, 앞의 책, pp.115~116.

빌레는 역순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자 또는 남자의 경제력을 중개자로 하여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 그의 욕망은 외적인 현실생활의 안락함을 추구함으로써 달성된다.

또 빌레의 남편 또한 빌레를 통해 아들을 얻는 방식으로 욕망을 달성하고자 한다.



(2) 욕망과 갈등 탐색

이 소설 작중인물의 갈등 구조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아진다. 갈등을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은 다양한 동기가 있게 마련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역순은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갈등과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난이라는 경제적인 문제와 남편을 바다에 잃은 젊은 과부로서 견뎌내는 고통이 그것이다.

-<전략> 바다만 숨기척을 하지 않는다면 돈은 등짐으로 지어 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뭇가사리, 미역, 소라, 전복... 이 모두가 역순이에게 있어선 금은보화였다. 열 개의 발가락으로 하늘을 걷어차며 물 속으로 곤두박질 칠 때마다 숨통이 부어오르는 고통이 따를망정, 바다에서 거뒀들이는 것들은 김을 매지 않아도 되고 비료값 걱정을 할 필요도 없기에 더욱 소중한 보물이었다.⁶⁵⁾

주인공의 경제 수단이며 생활의 원동력인 물질은 역순에게 욕망의 핵심

65) 고시홍, 앞의 책, p.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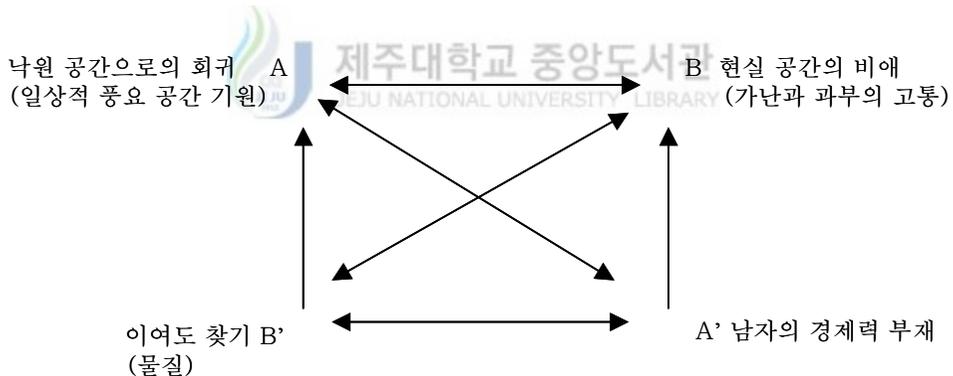
이 되는 동시에 빌레와 자신과의 갈등 요소를 생산해 내는 동기가 된다.

“말이 났으니 말이주마는, 이제 대국놈이 오지 않은 날은 잠을 못 잔 큰일이여.”

“애간장에 붙은 불을 한숨으로 끄며 사는 사람 생각도 허라.”⁶⁶⁾

빌레는 남편을 똑같이 바다에 잃고도 재혼하여 안락한 생활을 하나 억순은 과부로 혼자 살아간다. 억순은 젊은 여자가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현실의 고통만큼이나 힘든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또 자기와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빌레와의 끝없는 갈등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욕망과 갈등을 도식화⁶⁷⁾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가난과 과부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주체의 욕망 목표가 되며 대립자의 욕망 목표로 가난과 과부의 고통이 해당된다. 이여도 찾기는 주체자의 중개자이며 남자의 경제력 부재는 대립자의 중개자가 된다. 낙원 공간으로의 회귀와 현실 공간의 비애, 이여도 찾기와 남자의 경제력 부재는 서로 대립관계이다. 또, 남자의 경제력 부재와 낙원 공간으로의 회귀,

66) 고시홍, 위의 책, pp.137~138.

67) 서정철, 앞의 책, pp.275~291.

현실 공간의 비애와 이여도 찾기는 서로 모순관계에 놓이며 낙원 공간으로의 회귀와 이여도 찾기, 현실 공간의 비애와 남자의 경제력 부재는 서로 함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주인공 역순은 남자의 부재로 인하여 낙원과는 거리가 먼 가난함과 과부로서의 고통을 생산하는 현실 공간의 비애를 감내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여도 찾기(물질)라는 고통 해결의 방법을 활용하여 일상적 풍요 공간으로서의 낙원에 이르고자 함을 보여준다.

처음에 주인공 역순은 빌레가 재혼하여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기와는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실을 비웃는다. 그러나 결국 역순도 물질을 통해 가난을 해결하고 빌레의 삶을 닮고자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결국 이여도 찾기를 통하여 죽음에 이름으로써 현실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주인공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견고한 신앙처럼 각인되어 있는 이여도의 이미지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여도의 의미의 생산 과정을 주제의 형상화 과정을 통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3) 일상적 풍요 공간으로서의 낙원

원래 제목은 작품의 구조나 인물, 주제를 암시하여 상징적으로 명명되는 경우가 많다. 『표류하는 이여도』 제목을 보면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작가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것은 이여도가 제주 인근 해역에 존재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다가” 삶에 지쳐 갈망하는 자에게 낙원처럼 나타나 보일 수 있는 심미적 공간임을 암시한다.

남편 제삿날마다 제관도 없는 제사상 앞에서 두 손 모아 비는 것도 그런 때문이었다. 동(東)의 바다 서(西)의 바다로 물고개를 넘을 때랑, 미역이며 생복, 소라가 많다는 이여도로 데려다 줘서 …… 남

편의 뱃길이 바로 해저의 보물섬인 이어도로 통하는 길처럼 여겨졌다.⁶⁸⁾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또한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역순은 독립성이 강하고 생활력이 뛰어난 억척스러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빌레는 독립적이지 못하여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기대어 살아야하는 의지가 약한 의미로 해석됨으로써 이들의 삶의 이상적 욕망 목표가 이어도를 지향하는 동시에 서로 대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이어도 사설이 들어간 민요를 인용하여 이어도를 제주인들의 고된 삶을 지탱해 주고 구원해 주는 구원의 섬, 꿈의 섬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이어도 민요를 주인공에게 부르게 하고 이어도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새로운 삶을 지향하도록 유도한다. 이것은 주인공 역순이 힘겨운 노동과 가난에 대한 한 뿐만 아니라 현실의 여러 가지 괴로움을 안고 힘겹게 사는 제주 여인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목이 상징하는 주제의 형상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

-이여이여 이어도, 여뎛길은 저승문이더냐. 한 번 가니 올 줄 모르는구나. 이여이여 이어도 호라. 신던 보선에 불 받아 농곡, 입던 옷에 풀해여 놓앙 애가 타게 기다려도, 다신 올 줄 모르더라. 이여이여 이어도 고레(맷돌)에⁶⁹⁾

작가는 맷돌 민요의 사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어도의 이미지를 이해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사설과 후렴 부분에 담고 있다.

김영돈의 『제주의 민요』에 채록된 <맷돌 방아노래>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68) 고시홍, 앞의 책, p.137.

69) 고시홍, 위의 책, p.136.

이엿문은	저성문이어
이어도질은	저성질이여
가난올충	몰르더라
신단보선에	불받아농곡
입단옷에	풀호여농앙
애가카게	지들려도
다신올충	몰르더라 ⁷⁰⁾

물질하러 뒤옹박을 가슴에 안고 물 속으로 들어 갈 때 역순은 구슬픈 노랫가락을 뽑아낸다. 사설은 부르는 사람의 흥취, 감정에 따라 변화를 주며 후렴은 ‘이어도사나’를 반복하고 있다.

김영돈은 제주도 민요 속의 이어도는 뜻있는 민요 사설에서보다도 오히려 뜻이 없는 여음(餘音)에 흔히 드러난다고 한다. 그리고 이 후렴들은 그저 무심코 조흥(助興)을 위하여 이어도라고 소리 내는 것뿐이지, 전설의 섬 이어도를 반드시 의식하면서 불리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⁷¹⁾ 그는 후렴 ‘이어도사나’를 전설의 섬 이어도와 관련짓고 있지 않으나 작가는 작품 속에서 역순이가 부른 해녀노래의 후렴 ‘이어도사나’는 이어도를 그리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 우리 어멍(엄마) 날 낳을 적엔, 해도 달도 없는 날에 낳아신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⁷²⁾

이 소설 속에서 작가는 이어도 사설이 들어간 민요를 인용하여 이어도를 제주인들의 고된 삶을 지탱해 주고 구원해 주는 구원의 섬, 꿈의 섬으

70) 김영돈,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 1993.

_____,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제주문화, 1993.

71) 위의 책, 『제주민의 삶과 문화』, pp.295~297.

72) 고시홍, 앞의 책, p.149.

로 그리고 있으며 주제의 형상화를 위해 민요를 인용한 점은 독자에게 객관적인 이해를 주기 위한 작가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이여도를 갈망하는 주인공은 이여도에 당도하기만 하면 돈이 되는 온갖 만물이 있어 고생을 면할 수 있으나, 그 곳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아직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서 현실의 역경을 이겨내게 해 주는 심미적이고 정신적 수준의 구원의 섬으로 암시하고 있다.

-<전략> 꿈결에나 닿을 수 있는 섬이기에, 뗏돌 앞에 앉았을 때나 방아채를 쥐고 있으면서도, 밭이랑에 앉아 김을 매거나 마당질을 하면서도 이여도를 불러대는 것이라 생각했다.⁷³⁾

-이여도는 해맑은 날에만 하늘과 수평선이 마주 붙은 사이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석 달은 좀처럼 구경하기가 힘들었다. 해녀들의 생명선을 끌고 다니는 뒤옹박 같은 섬이었다.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다가 영등할망이 찾아와서 온갖 해산물의 씨앗을 제주 바다에 뿌리고 간 뒤에는,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의 섬이었다.⁷⁴⁾

이처럼 작품 속에서 이여도는 주인공의 삶이나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역순은 노동을 하면서 이여도를 부르고,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빌고 또 비는 것도 현실의 고달픔을 이여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여도가 주인공의 삶과 의식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사회적 공간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갈망하는 이여도가 관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뜻한다. 주인공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이여도를 통한 풍요를 기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여도는 미역, 전복, 소라 등

73) 고시홍, 위의 책, p.149.

74) 고시홍, 위의 책, p.148.

물자가 풍부하고 사시사철 따뜻하여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보물섬으로 묘사된다.

특히, 이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이여도는 첫째, 꿈결에나 닿을 수 있는 섬, 둘째,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섬, 셋째, 영등제 이후에는 어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의 섬으로서 구체적 이미지로 제시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여도가 살아있는 낙원의 이미지로서 제주인들의 심리 속에 실존 공간처럼 각인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제주인들이나 역순에게는 이여도라는 공간이 가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낙원으로서의 이미지나 무릉도원에 비유될 수 있는 상징성을 함유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낙원의식은 중국의 무릉도원⁷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양인의 낙원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원형이 되고 있다. 위에 나타난 이여도는 무릉도원과 마찬가지로 일년 내내 따뜻하고 물자가 풍부하여 근심 없이 살 수 있으나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일상적 풍요 공간으로서의 낙원을 그리워

75) 정재서, 앞의 책, pp.251~268.

무릉도원형(武陵桃源型)은 도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전란을 피한 소집단에 의해 건설된 외부와 격리된 소규모의 향촌으로 노자가 원형이다. 노자가 당시 기울어 가는 東周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비판한 이른 바 “七反”은 <도덕경>의 중요한 정치관 내지 사회관을 이룬다. “反戰爭”, “反壓迫”, “反重稅”, “反干涉”, “反貧富不均”, “反工藝技巧”, “反財產佔有”의 취지가 구현된 공간이다. 노자의 이러한 유토피아 의식은 東晉의 대 시인 도연명(陶淵明)에 이르러 문학적으로 더욱 윤색되어 동양 유토피아의 뚜렷한 한 전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 곳은 수려한 경관,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가 함께 하는 곳으로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잘 나타나 있다. 무릉도원형은 현실에 대한 불만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그 구현의지는 대동사회 만큼 광범위하게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점은 표현되고 있지 않다.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여도를 찾아 나섰다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하나는 주인공 역순이 상상 속의 낙원인 이여도로 회귀했다는 해석이며,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이여도의 부재를 증명하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후자의 논리가 가능하다면, 현실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이여도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 성립한다.



Ⅲ. 결 론

이 연구는 제주인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어 있는 이여도 모티프가 현대 작가들에게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되어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설이나 민요 속에 함유된 이여도의 전통적 의미 범주는 극단적인 양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이상향이 갖는 행복과 낙원의 이미지며, 다른 하나는 죽음과 마(魔)의 이미지이다. 전자가 현실의 불만과 불행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면, 후자는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돌아올 수도 없는 죽음의 경계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 공간 속에 이여도의 상징성이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로 선정된 4편의 작품 속에 형상화된 이여도는 작가로 하여금 변증법적 인식의 과정을 거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전설이나 민요 속의 이여도는 바다 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비로운 환상의 공간으로 묘사된다(정). 그러나 작가는 작중인물들에게 현실 속에서 환상적인 초월의 공간이 부재함을 체득하게 하고(반), 나아가 그러한 결과를 통하여 실존적인 삶의 공간 속에서 이여도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한다(합).

따라서 작가는 민요나 전설 속에서 계승되어 온 이여도의 전통적 의미를 현대적인 의미로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작중인물들에게 통과 의례적인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속에서 이여도를 꿈꾸는 인물들이 죽음에 이르거나 불행과 고난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반증들이다. 이런 변증법적 인식의 발전을 통해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이여도의 현대적이고 실존적인 의미를 제공한다.

과거의 제주인들이 바다에 이여도를 설정했던 것은 협소하고 척박한 섬에서의 지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한 메시지처럼 들린다. 육지에서의 질곡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해상에 이상향을 설정하고, 언젠가 그 곳에 이르러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자 한 것은 제주인들에게 자연스럽고도 긍정적인 욕망으로 보인다.

앞에서 고찰한 4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이여도에 대한 강한 집착과 탐구 욕구를 보여준다. 여기서 소설 속에 형상화되어 있는 이여도는 서양의 유토피아나 동양의 낙원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전설에 나타난 이여도는 제주도 해역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환상의 섬이자, 아직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이상 공간이다. 이러한 이여도는 환상 속의 심미적 공간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둘째, 네 작품 모두 이여도는 제주인들의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서, 현실 세계의 빈곤과 결핍을 해결하고 행복을 약속하는 현실적인 낙원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셋째, 이여도를 향한 인물들의 꿈은 현실의 고통에 비례하여 증대된다. 이러한 꿈은 현실세계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그 곳에 가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넷째, 소설 속의 이여도는 죽어서나 갈 수 있는 죽음의 섬이자 구원의 섬이다. 전자는 현세적인 실현 불가능성과 연결되어 있고, 후자는 내세적 환상성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여도는 현실 세계가 아닌 환상 세계로 드러난다.

다섯째, 이여도는 현실과 괴리된 섬이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향으로 제주인들에게는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구원의 섬으로 심미적 상징성을 갖는다.

끝으로 앞에서 논의한 이여도의 현대적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김석범의 작중인물들은 이여도에 대한 강한 집착과 욕구가 혁명이라는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대동사회형을 지향한다.

2. 정한숙의 이여도는 이상세계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현재 이곳의 실존 공간에서 희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청준은 상상 속의 이여도가 아닌 현재적 삶이 있는 현실 공간 속에서 찾아야 함을 역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속에서 이여도를 찾던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바다에서 실종된다.

4. 고시홍은 이여도가 관념이 아닌 일상적 풍요로움이 있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 암시하고, 현실의 힘든 역경을 이겨내게 해 주는 구원의 섬으로 형상화 한다.

인간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상적인 삶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갈망하며, 소설은 그런 낙원 지향 욕구의 한 문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해 보인 4편의 작품 또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보편적인 낙원지향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주인들의 삶과 자연과 역사가 평탄하지 못하여 이상향을 절실히 갈망하면서 삶을 견디어 왔다는 반증이 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이여도 모티프를 문학적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켜 온 심미적 이유와 현대 작가들이 문학적으로 수용하여 형상화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게 되리라 믿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해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텍스트를 현대소설 4편에 국한시킴으로써 이여도의 상징성을 최대한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성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자료 수집과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참고문헌

<분석 텍스트>

- 김석범, 『화산도』, 실천문학사, 1988.
고시홍, 『표류하는 이어도』, 『대통령의 손수건』, 전예원, 1987.
이청준, 『이어도』, 『제3세대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4.
정한숙, 『이어도』, 『학원한국문학전집』, 학원출판 공사, 1988.

<단행본>

- 김현,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980.
김은희, 『이어도를 찾아서』, 이어도, 2002.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1998.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 『제주의 민요』, 신아문화사, 1993.
-----, 『제주도 민요연구』, 조약돌, 1983.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김명식외, 『제주민중항쟁 I』, 아라리연구원편, 소나무, 1988.
김봉현, 『제주도 역사지』, 교문사, 1960.
구인환·조남철, 『소설 창작론』, 한국통신방송대학교, 1994.
송성대, 『제주인의 해민 정신』, 제주문화, 1996.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언어학과 문학 기호학의 만남』, 민음사, 998.
임충, 『전설의 고향』, 숭일문화사, 1980.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오성찬 채록, 『한라의 통곡소리』, 소나무, 1988.
윤홍노, 『한국문학의 이해학적 연구』, 일지사, 1976.
정한숙, 『소설기술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 보고서』,

2003.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2001.

제주도, 『제주민요의 이해』, 시민당 인쇄사, 2000.

진성기, 『제주도 전설』, 백록, 1992.

최길성, 『한국인의 한』, 예전사, 1991.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현용준 · 김영돈채록, 『이여도』, 『한국구비문학대계9-1』

(제주도북제주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민중사 I』, 한국민중사연구회, 풀빛, 1986.

황선명, 『민중종교사』, 종로서적, 1981.

C.G Jung, 『무의식의 분석』, 설영환역, 선영사, 1997.

Richard Wollheim, 『프로이트』, 이종인역, 시공사. 2001.

<논문 및 평론>

김영화, 『문학과 이여도』, <백록어문>, 제주문화, 1996.

-----, 『강단비평의 성과와 제주 여인상의 제시』, <제주문학>

제16집, 제주문인협회, 1987.

김종희, 『유토피아의 상상력과 현실인식』, <어문논문>, 경희대
1988.

김영한, 『이상사회와 유토피아』, <한국사 시민강좌>제10집, 일조각, 1992.

김재용, 『폭력과 권력, 그리고 민중』,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김은석, 『이여도 : 理想과 絶望의 世界』, <한국학 논집 12권>, 한양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87.

김재두, 『정한숙 소설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혜영, 『근대소설에 나타난 환상의 존재방식』 <이청준의 이여도를 중
심으로>.

문덕수, 『내용과 수법의 다양성』, 『현대문학한국문학전집5』,

신구문화사, 1965.

박명림, 『민주주의, 이성, 그리고 역사연구: 제주4·3과 한국현대사』,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박은숙, 『정한숙 소설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안성수, 『작중인물의 욕망과 갈등 분석론』, <백록어문>, 백록어문학회, 2001.

안성수,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 研究 試論』 <『배따라기』, 『狂炎소나타』, 『운수 좋은 날』, 『날개』, 『巫女圖』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양정심, 『주도세력을 통해서 본 제주4·3항쟁의 배경』, 『제주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1883.

염무웅, 『좌절과 도피-IYEU島』, 『현대한국문학전집5』, 신구문화사, 1965.

윤용혁, 『제주, 삼별초는 어떻게 보아야하나』, 『한국문화와 제주』, (국립박물관편), 서경, 2003.

장운호, 『이청준 소설 연구』, 동덕여대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장양수, 『李清俊 中篇 <이어도>의 巫俗的 理解』, <東議語文論集第6輯>, 1993.

최규성, 『이청준 소설 연구』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혜영,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최혜실, 『<이어도>에 나타나는 유토피아의 空間性과 時間性』, 1994.

홍미선, 『유토피아에 나타난 갈등구도의 이해』,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한영현, 『이청준 소설의 낭만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Meaning of "Iyeodo" Accepted in Modern Novels

Kim Hyeran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Academic Adviser: Ahn Seongsu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Iyeodo" motif was creatively accepted among modern writers using the text of 『Volcanic Island』 of Kim Seokbeom, 『IYEU Islands』 of Jeong Hansook, 『Iyeodo』 of Lee Cheongjun and 『A Floating Iyeodo』 of Go Shi-hong. Iyeodo has been handed down to Jeju residents as an ideal land for generations.

To accomplish such objective, this study utilized the structuralism and symbolic method basically. It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Iyeodo accepted in the novel using the summary of text meaning network, structural exploration, detection of characters in the novel and binomial confronting structure.

Following is the summary on modern meaning of Iyeodo accepted in the analysis text by the writers.

1. Utopia of characters in the novel of Kim Seokbeom

pursues solidarity-oriented society.

2. Iyeodo of Jeong Hansook means the starting of new life, overcoming the reality in the current actual space.

3. Iyeodo of Lee Cheongjun emphasizes that we need to find it at the actual space with current life.

4. Go Shi-hong depicts Iyeodo as the island of rescue that helps overcome difficult adversity of the reality as the concrete space of life with daily richness.

Human craves for dream and hope for ideal life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e novel can be regarded as a literary expression of such paradise-oriented desire. 4 pieces of work is connected to common paradise-oriented spirit of human to solve complaints and death of reality.

‘Iyeodo’ helps find strong commitment and active awareness of life in the sea. It is closely related to infertile environment and social conditions of Jeju island.

Literary meaning acceptance of Iyeodo has not be actively discussed even if it is worth while studying i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opened discussion through analytic approach of literary work accepting the meaning of Iyeodo.⁷⁶⁾

※ This thesis is a master'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in Oct. 2005